

한인뉴스

Korean News(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haninnews123@gmail.com

2009. 11

통권 161



발행 : 재인도네시아 한인회

MESSAGING NOW COMES TO LIFE

한글 메뉴 및 SMS



LG GW300

www.lgmobile.com



LG
Life's Good



- QWERTY Keypad • Live Square™
- SMS Chatting • 2.4" Wide Screen

JOIN THE TOUCH GENERATION

한글 메뉴 및 SMS

ARENA



KM900

- S-Class UI • 5MP Camera
- Wi-Fi • Dolby Mobile Sound

한글 메뉴 및 SMS

Renoir



KC910

- 5MP Camera • 3.5G/HSDPA
- 120 fps Video Recording

한글 메뉴 및 SMS

Cookie



KP500

- 3" Full Touch Screen
- Active Flash UI • Accelerometer

0-800-123-7777
(Bebas Pulsa)

LG MOBILE SHOWROOM & SERVICE CENTER

Jakarta : • ITC Roxy Mas, Tel. : (021) 63866287 • Mall Taman Angrek, Tel. : (021) 5639082 • ITC Cempaka Mas, Tel. : (021) 42901978-79 • Mal Senayan City, Tel. : (021) 72781540 • Mal Ambassador, Tel. : (021) 57939654, 57933590 • Pacific Place Mall, Tel. : (021) 57973044-55 • ITC Fatmawati, Tel. : (021) 91260046 • Grand Indonesia, Telp. (021) 23580652 • Mall Kelapa Gading 3, Tel. : (021) 4507970 **Tangerang**: Supermal Karawaci, Tel. : (021) 5473437 **Bogor**: Botani Square, Tel. : (0251) 8400674

LG MOBILE MASTER DEALERS

Jakarta : • Felixindo • Indokorn • Dunia Phone • Star Cell

LG MOBILE PARTNERS

Jakarta : • Andrew Cell, Telp. (021) 63858857 • SMS Shop, Telp. (021) 63858751 • Pancatama, Telp. (021) 63858780 • H2, Tel. : (021) 6304815 • Felixindo, Telp. (021) 42880810 • Sacho Cell, Telp. (021) 5762528 • SG Cell, Telp. (021) 69566626 • Milema, Telp. (021) 66601515, (021) 66603128 • Dunia Phone, Telp. (021) 63860678 **Cibinong**: • Central Communication, Telp. (021) 87920335 **Bekasi**: • Dewata, Telp. (021) 8885.5178 **Bogor**: • Centralindo, Telp. (0251) 8345456 • Teguh Cellular, Telp. (0251) 8322153

LG MOBILE ORIGINAL ACCESSORIES

Original Room, Tel. (021) 30010333, (021) 9852221, www.originalroom.com

CIC
CUSTOMER INFORMATION CENTER
Cayanan 240 hari
Jakarta : (021) 727-99777
Surabaya : (031) 549-0777

이제 10월부터 자카르타에서 서울로 가는 여행이 더욱 특별해집니다.
최신 좌석에서 즐기는 주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 넓은 평면 좌석의
안락함과 프라이버시는 여러분께 가장 편안한 여행을 약속 드립니다.
여행 그 이상의 특별함, 대한항공에서 만나보세요.



당신이 꿈꾸던 완벽한 휴식

대한항공 Prestige Sleeper Seat가 드리는 휴식과 여유.
버튼 하나로 연출되는 완전평면 침대형 좌석, 와이드 LCD 모니터,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세상으로 초대하는 AVOD 시스템까지,
내리고 싶지 않은 편안함이 있습니다.

* Prestige Sleeper Seat 공식 홈페이지 <http://newseat.koreanair.com>

* Prestige Sleeper Seat는 현재 한정된 노선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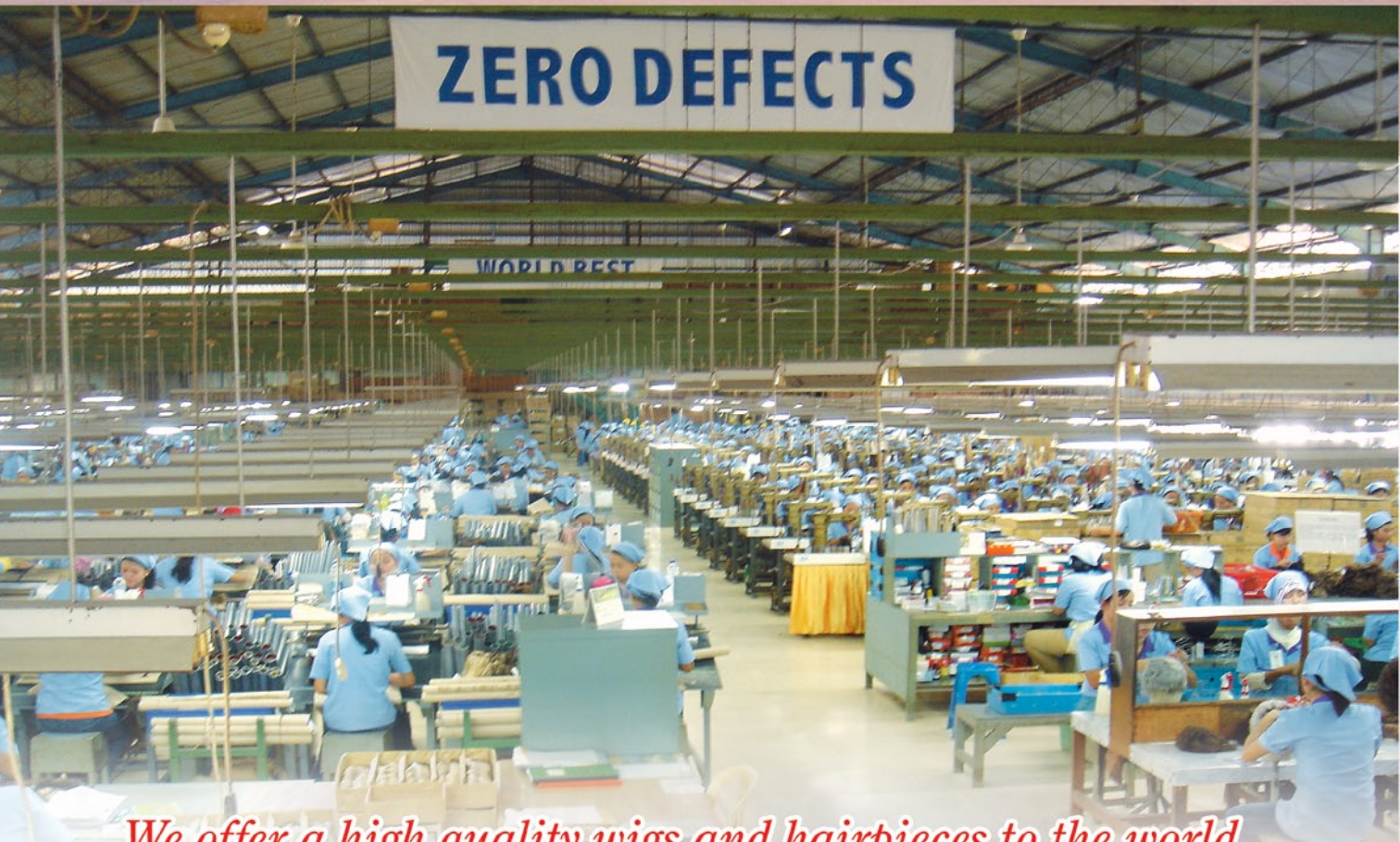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자카르타지점: 021-521-2180

WORLD BEST



We offer a high quality wigs and hairpieces to the world.



PT. DONGAN KREASI INDONESIA

Kawasan Industri Hyundai Kav.C3 No.12 Cibatu, Cikarang Selatan
Bekasi 17550 INDONESIA

Tel : 62-21-897-2140 / 2141 Fax : 62-21-897-2139

e-mail : dongan@cbn.net.id

Travel Services with

Korean Touch!

Air Ticketing

Hotel Reservation

Overseas & Domestic Travel

Tailor-made Corporate Travel



국제선 · 국내선 항공티켓



해외 여행 패키지

호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왕복항공권/호텔 및 리조트/공항 및 여행지 이동차량/가이드/식사 포함)

인도네시아 여행 패키지

반둥, 마나도, 수라바야, 족자카르타, 발리, 바탐

비즈니스 패키지

- 서울 에어텔 패키지 (가루다 항공+호텔)
- 자카르타 출장자 패키지 (가루다항공+호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신규 인천 직항

운항편	운항구간	운항요일	시 간
GA878	자카르타 - 인천	일 / 화 / 금	23:40 / 08:30+1
GA879	인천 - 자카르타	월 / 수 / 토	10:35 / 15:30



Garuda Orient Holidays
Aerowisata Travel Company
Garuda Indonesia Group

Operated by BPW SATRIAVI

Tel. (021) 7278-0856 Fax. (021) 7278-8375
michelle@garudaholidays.kr / www.garudaholidays.kr

Unit 55 3rd Fl. Dharmawangsa Square Citywalk,
Jl. Darmawangsa VI & XI,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Bersih itu Indah!

PT.KOLON INA의 필름으로
삶을 더욱 풍요롭게
세상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PT.KOLON INA는
일상생활에 편익을 주는 **Packaging Film**으로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One & Only

PT.KOLON INA



Jl. Raya Serang km.80, Serang Banten 42183, Indonesia
Tel : 0254-2



MY(**희망을 주는**) PARTNER

새벽을 함께 여는, 기쁨을 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꿈을 키우는,
멋진, 전문적인, 믿음직한, 말이 통하는,
친구 같은 파트너가 되어 드렸던 외환은행

이제, 모두의 희망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KEB



인도네시아한국외환은행

본점 : TEL 021) 574-1030, Jakarta Sudirman에 위치한 GKBI 빌딩 20층(BRI II 빌딩 옆)

짜카랑출장소 : TEL 021) 897-3340, Lippo Cikarang에 위치한 Lippo 빌딩 2층(SILOAM 병원 옆)

플라빠가딩출장소 : TEL 021) 4585-6388, Graha Rekso 빌딩 Ground floor

깨끗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위하여
KIDECO는 여러분과 함께 초록세상을 가꾸겠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자원회사

PT. KIDECO JAYA AGUNG

Your Child Can Be A CHAMPION!



Catch **AUSTRALIA'S LEADING EDUCATION EXPERTS** in Jakarta



Mr David Chiem

MindChamps 설립자 겸 그룹 CEO

Mr Brian Caswell

-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소장
- 국제적 유명 작가 겸 교육자

최첨단의 창조자들은 David Chiem과 Brian Caswell이 교육, 마인드, 영화, 문학, 공연예술 그리고 모든 연령대의 모든 어린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학습프로그램 제작 사이에서 50년 이상의 경험을 축적한 New Brain Software® 및 Optimal Flow Method® 전략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21세기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3가지 결정적 사고방식 - 챔피언 마인드, 창의적 마인드, 학습 마인드** - 를 배울 것입니다.

이 전문적인 워크샵 참여로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 자녀들이 학교수업에 즉시 적용 가능한 파워풀한 공부법 무료시범 수업
- 80 달러 가치의 자녀학습강도평가
- 21세기 가정교육 바이블로 불리는 베스트셀링 책자 Deeper Than The Ocean

일자: 2009년 12월 5일(토요일)

시간: 14:00-17:00

장소: Raffles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JI Gedung Hijau Raya I No. 1, Pondok Indah, Jakarta 12310

지금 예약하세요! Shinta (021) 7590 7950, Anita (021) 7590 3342

리얼 라이프 스토리



Elaine Koh, 12세

“부모님께서 제 성적에 대해 우려하셨고 저를 MindChamps에 보내셨죠. 시험에서 3개의 A와 1개의 A*를 받아서 정말 기뻐요. MindChamps에서 배운 강력한 방법들은 시험 준비 시간을 많이 줄여줬어요. 성적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확신도 커졌고 평생 리더십 기술도 개발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서 MindChamps에 들어오길 권하고 싶어요.”



Selin Erginbas, 15세

“MindChamps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강력한 공부법은 저의 국제학교 커리큘럼에 적용시킬 수 있었어요. MindChamps에서 저의 사고방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었다는 점과 저희 학교의 도전적인 커리큘럼에 적용할 수 있는 강력한 공부법을 배울 수에 매우 기뻐요.”

Partners In Creating Champions



MindChamps®
Discover the Champion in You



12



17



26



28

인도네시아 한인회보
한인뉴스

창간 1996년 7월 15일

발행처: 인도네시아 한인회

발행인: 승은호

편집인: 조규철

편집위원: 김재민, 김은미, 최양기, 정무송, 김영민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전화: (021) 521-2515, 527-2054

팩스: (021) 526-8444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http://www.innekorean.or.id>

이번 호 이야기

12 한국문화주간

한국의 문화! 인도네시아에 심다!



16 한인사회 소식

- 강진 구호금, 한인사회 온정의 손길 이어져
- 구호금 성금, 인니지역대표협의회 의장에 전달
- 부인회, 여성부에 구호품 전달
- 재해성금 기탁자(단체) 명단
- JKIS, 녕마주 마을과 남부수마트라에 온정의 손길을...
- 옹마, 빠당 지진 재난민에 구호물품 전달
- 12월 3일 '비' 가 온다
- 리츠칼튼, 메리어트 보안 강화
- 교민 신기업 씨, 국민훈장 석류장 전수 받아
- 코린도 장학재단, UI에 장학금 수여
- 교민기업 PT. BIA, 3만 9천 헥타르 팜 농장 허가 받아
- 한글세계화재단 정순훈 총장 자카르타 방문
- 부인회, 한국음식 강습 시작
- 반동한인회 새로 이전
- 중부자바한인회, 풍성한 한가위 한마당 열어



28 건강칼럼 이슬람의 젓과 꿀의 과일 KURMA

30 인터뷰 이 사람 Bapak 마헨드라(인니수출입은행 CEO)

33 인니수출입은행 설명회 개최 안내

34 시사포커스 16 수까르노 골드

39 묵향과 더불어 5 습자의 기억(부연 이선우)

40 독자기고 재미있는 틈새이야기

45 별과 달이 비추는 오지의 마을 반동에서 겪은 하루

48 특별기고 한국의 다자외교와 국제적 리더십의 기회

50 드라마에서 퍼올린 바하사~

53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54 인도네시아 법률 해설

57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소식

58 유춘강의 긍정칼럼 Bintang은 당신 가슴에

60 KOWIN 제4기 출범

62 방치영의 노무/인사 칼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66 건강 지키기 기분이 좋아지는 과학적 방법 10 가지

68 문화회관 안내

69 MOVIES

70 BOOKS

72 생활정보 가이드

76 11월 공지사항



한국의 문화! 인도네시아에 심다!

- 1회 한국문화주간 성황리 개최



지난 10월 자카르타 곳곳에서 한국문화의 함성들이 울려 퍼졌다. 한국문화주간이라는 이름으로 10월 9일 자카르타 발라이 가르띠니 공연장에서 열린 개천절 공식행사를 겸한 한국문화공연을 시작으로 도심 곳곳에선 자수전시회, 한-인니 한국학 세미나, 한국영화제, 음악회, 한국농식품 전시회, 한-인니 친선의 밤 행사가 연이어져 많은 현지인들과 교민, 외교 사절단들에게 풍성한 한국의 문화를 선보이게 되었다.

한국대사관 주최로 올해 처음 선보이게 된 이번 한국문화주간은 그간 대사관 및 한인회, 각 교민 문화단체들이 주최가 되어 산발적으로 추진, 노력한 만큼 큰 문화적 충격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반해 이번 문화주간은 약 10일간에 걸쳐 집중된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통해 교민 뿐만 아니라 현지에도 한국문화에 대한 상당한 인상을 남겼다. 인도네시아 현지 매스컴에서도 매일 문화주간 행사들을 보도해 홍보면에서도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힘

“특히 팽파리 소리와 상고를 크게 돌리며 그려내는 힘찬 선과 흰 한복을 입고 느릿한 동작을 통해 한을 그려내는 공연자들을 보면서 내 손에 스케치북이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10월 9일 밤, ‘한국문화공연’에 초대받은 한 예술잡지 편집인의 말이다. 1500여



관객으로 공연장을 꽉 매운 이날 행사는 한국에서도 각계 최고의 예술인들이 공연을 펼쳐 시종 큰 박수와 집중을 이뤄냈다. 현란한 기술과 큰 동작과 소리가 일품이었던 풍물놀이와 비틀즈의 곡을 한국의 고유 가야금 소리로 재창조해낸 숙명가야금 연주단의 공연, 앓은 자태와 조용하고 구슬픈 소리로 공연장을 꽉 채운 대금연주, 한국 최고의 기술을 지닌 리버스 룰의 비보이 공연 등은 한국 문화의 다양함을 극적으로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또한 남부 수마트라 지역 강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재해민들을 위한 살풀이 공연은 자리한 양국민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했다.

고유의 선과 색에 심취

한국 전통 자수에 일평생을 바쳐온 한상수(74, 중요무



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씨는 활옷, 십장생 병풍, 공주방석, 불교자수 등 전통과 창작자수품 80여 점을 전시했다.

13일 개막한 한상수 자수전시회는 미술 전공자인 본지 기자의 눈에도 교과서를 통해 통념적으로 배워왔던 참다운 한국 미 - 꾸미지 않듯 소박하지만 그 안에 화려함과 역동성을 내포한 - 를 이제서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던 일대 사건이었다. 손수 염색한 수천가지의 실로 한 땀, 한 땀 수놓기를 한 해를 넘기기도 한다는 작품들 앞에서 그 정성과 기다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상호 신뢰는 친목과 인적교류로 부터

10월 13일 자카르타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약 200여 명의 교민과 한국과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현지 간부 및 단체들이 참석하여 상호 친목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김호영 대사는 “1973년 양국의 외교관계 성립 이후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진정한 친구관계로 발전중이다”고 피력했으며 Teguh Rahardjo 연구기술장관 대변인도 “오늘 이 자리가 양국 친교의 새로운 장을 열과 동시에 다른 차원의 협력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행사를 주최한 KOICA 연수생 동창회와 최근 발족한 인도네시아국제한국학회(INAKOS)의 소개 하기도 했다

인니 내 지한파 인사들과 우리 교민간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 통해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마련 된 첫 번째 행사인 지속적인 모임을 통한 네트워크 강화에 참석자 모두 동의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

상업성, 역사, 교육이 독특하게 엮인 한국영화에 감탄

인니 극장가에선 보기 힘든 일주일간의 한국영화 관람에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14일 자카르타 퍼시픽플레이스 메가플렉스 극장에서 개막 후 일주일간 열린 한국 영화제는 ‘세븐데이즈’, ‘신기전’, ‘천년학’, ‘8월의 크리스마스’, ‘우아한 세계’ 등의 영화가 하루 2편씩 무료 상영되어 브라운관을 통해서 볼 수 없는 색다른 맛을 전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품이 엄선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현지인 관람객의 반응은 뜨거웠다. 영화관계자 또또 씨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 교육적이거나 계몽적인 영화들이 대작의 반열에 오르고 있는 반면 대부분의 한국영화는 철저한 상업성을 담고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영상과 역사성과 교육적인 부분이 훌륭히 접목되어 한국영화만의 특색을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교민 음악인들의 향연, 그래서 더욱 감동 선사

10월 15일 우스마르 이스마일 홀. 잔잔한 음악과 스크린에 쓰여진 영상. 약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음악회엔 사회도 없다.

예산이 없어 시작부터 고민에 빠졌던 음악회가 한인회 송창근 부회장의 전액 후원으로 첫 닳을 올리고 타 행사와는 다른 순수 교민음악인들과 인니 합창단, 재즈그룹이었지만 노력과 열정 하나로 진한 감동을 선사했다.

기존 음악회의 틀을 깨고 클래식, 포크, 재즈라는 무서운(?) 조합의 컨셉과 또한 영상과의 접목을 시도해 상호 보완을 해준 실험작(?)이었지만 뛰어난 연출에 교민들과 현지인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국이 마냥 좋아 한국관련 행사에 기회만 주어진다면 찾는 디는 데씨 씨는 공연을 동영상으로 담아 바로 Facebook 에 올렸다고 한다.

한 교민은 앞으로 교민 음악회를 개최할 때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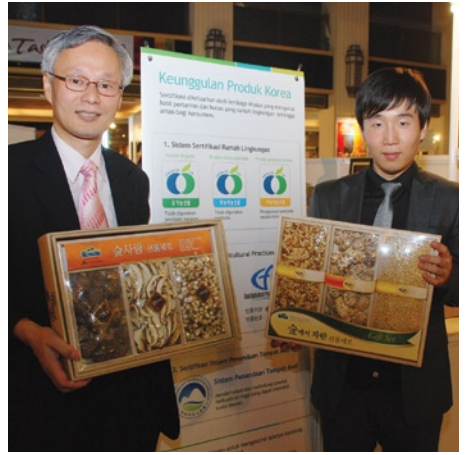
한국학 발전 논의

한국대사관과 인도네시아국제한국학회(INAKOS) 공동주관으로 13일 오전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UI)에서 한국학세미나가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INAKOS 회원과 한국학과 대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발표 논문은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 전망’ ‘한국의 이주노동자’ ‘한반도 통일’ 등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려는 시도가 보였다.

INAKOS는 이날 제1호 ‘한국학 저널’을 발간했으며 가자마다 대학 교환교수인 양승운 교수는 “지난 5월에 이어 두번째 열린 세미나가 전국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발전했다”며 “INAKOS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한국학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영 대사는 “INAKOS가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활발한 발표를 통해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한국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데 중심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조합중앙회 성인경 인니법인장은 잣, 건포도, 표고 버섯 등 이곳에 전시된 상품들의 퀄리티는 최상품들이라면서 현지 사업가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첫 시도된 한국문화주간은 자타가 공인하듯 성공적이었다. 약 열흘 동안 펼쳐진 한국 최고의 예술인들과 함께한 문화의 향연은 반수 이상의 참석자가 인도네시아인이었듯이 현지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감동과 진한 인상을 선사했다.

지면을 통해 간과할 수 없는 점은 모든 행사를 수 달에 걸쳐 진두 지휘한 김호영 대사의 강한 의지가 성공의 열쇠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대사로 부임 후 줄 곳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김호영 대사는 금번 한국문화주간 동안 집중적인 방법을 통해 한국문화 홍보의 효과를 이끌어 낸 장본인이다.

하지만 금번의 집중적인 한국문화주간을 통해 한국문화 우수성에 대한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대사관 주체의 시도가 첫 시도였던 만큼 본국 예술인들에게만 편중이 되어 교민사회 문화인들이 수동적인 입장의 편에 놓여져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물론 교민 문화단체의 실력은 금번 행사를 위해 찾은 그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점은 사실이지만 교민 문화인들의 참여를 유도를 함으로서 이젠 멈출 수 없는 한국문화주간의 지속성을 담보해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 해본다.

<한인뉴스 김영민 편집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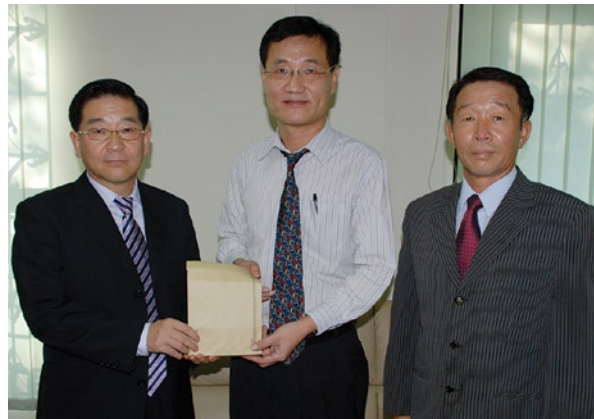
자카르타 도심 한복관에서 맛을 알리다

지난 자카르타 중심지에 위치한 그랜드 인도네시아 몰에선 한국 농식품을 소개하는 전시가 열렸다. 개막식에선 인도네시아 요리전문가로 최근 한국관광명예홍보대사로 선임된 윌리엄 웅소씨가 한국음식의 장점을 자세히 알리며 한국음식 이해를 도왔다.

‘한국의 맛’이라는 주제로 나흘간 열린 전시회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인삼과 과일, 산나물 등을 소개하고 한국 음식을 직접 시식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었다

인삼차를 시식해본 한 현지인은 쓴 인삼차가 생소한 듯했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의 입맛을 맞추려면 더욱 단맛을 가미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전시회가 쇼피타운 한 가운데 음식점가에서 열린 만큼 아직은 생소한 한국음식을 맛보려는 현지인들로 준비해 놓은 갖가지 음식들이 바로 바닥이 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JIKS 교사 및 학생, 백두회, 외환은행, 민주평통인니지회(사진 왼쪽부터 시계 방향)

강진 구호금, 한인사회 온정의 손길 이어져

지난 9월 30일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 빠당 부근을 강타한 진도 7.6규모의 강진으로 인해 지난 2006년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의 족카르타 주를 강타한 강진 이후 최대의 700여명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는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회장 승은호, 이하 한인회)를 주축으로 피해 이재민의 아픔을 함께하고 피해지역복구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기 위해 구호성금 모금을 전개하고 교포들의 온정들을 모았다.

한인회는 지난 10월 28일까지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4개 단체 및 업체들의 구호금 기탁으로 USD 16,530, 루피아화 518,652,500를 모금하였다.(루피아화로 계산시 총 676,183,400 루피아 / 재해성금 기탁

자 명단은 17쪽 참조)

대부분의 단체와 업체들은 직접 재해기금 모금 계좌로 구호금을 보냈는가 하면 JIKS 및 몇몇 단체는 한인회를 직접방문하여 정성스럽게 모음 성금을 기탁하기도 했다.

올해 노인대학 어버이날 행사 후원, 심장병 어린이 돕기 등 지역사회 후원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결성 15년이 된 백두회(회장 이종후)는 한인회를 방문,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리라고 전하며 금번 재해뿐만아니라 한인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동석한 강주석 세림 사장도 매트리스 1000장을 재난지역에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호금 성금, 인니지역대표협의회의 의장에 전달

한인회는 지난 10월 28일, 28일 현재 까지 모은 성금 676,183,400 루피아를 자카르타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국회를 방문, 이르면 구스만 인도네시아 지역대표협의회의(DPD) 의장에게 전달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재유 한인회 수석부회장과 임원들은 “강진으로 많은 사상자와 피해가 발생된데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성금을 모금했다”고 전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아픔을 잊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구스만 의장은 “모금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난날의 참사에 동정과 관심을 가져줘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고 빠당지역 뿐만 아니라 잠비지역에도 많은 재해를 입었지만 많은 단체들의 관심으로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부인회, 여성부에 구호품 전달

부인회는 지난 9월 서부수마트라지역의 강진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여성부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았다.

이에 부인회는 아기용 기저귀와 여성에게 필요한 한생리대(7box)와 함께 성금 (Rp5,000,000) 10월 16일 여성부로 전달했다

재해성금 기탁자(단체)명단

번호	회사 및 단체명	대표자	기부액	
			US \$.	Rupiah
1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	김 호 영	1,495.00	
2	Korindo Group	승 은 호		100,000,000.00
3	평통 인도네시아지회 위원일동	김 광 현		24,000,000.00
4	PT. ACMI	강 호 성		5,000,000.00
5	PT. Agri Trading	배 정 옥		2,000,000.00
6	PT. Aneka Trans	김 상 태		2,000,000.00
7	PT. Bongman Int' l	김 종 성		1,000,000.00
8	PT. Cipta Orion Metal	김 준 규		1,000,000.00
9	PT. Dayup Indonesia	석 웅 치		10,000,000.00
10	PT. Dong Jung Indonesia	조 규 철		5,000,000.00
11	PT. Dong Sung Indonesia	김 재 유		10,000,000.00
12	PT. Doosan Cipta Busana Jaya	배 도 운		10,000,000.00
13	PT. Gaya Indah	김 영 옥		10,000,000.00
14	PT. Hanindo Express	신 기 업		10,000,000.00
15	PT. Hankook Ceramic	차 상 만		50,000,000.00
16	PT. Hansae Indonesia Utama	유 남 실		10,000,000.00
17	PT. Hansoll Indo	김 선		15,778,000.00
18	PT. Haspul International	엄 상 훈		5,000,000.00
19	PT. Inwha Indonesia	황 의 상		2,000,000.00
20	PT. Kideco Jaya Agung	이 찬 의		100,000,000.00
21	PT. Kolon Ina	안 흥 제		10,000,000.00
22	PT. Misung Indonesia	김 병 철		5,000,000.00
23	PT. Protrans Indonesia	허 군 욱		3,000,000.00
24	PT. Samick Indonesia	김 성 대		30,000,000.00
25	PT. STX Pan Ocean	김 원 규		1,000,000.00
26	PT. Sungwon Indonesia	이 종 후		5,000,000.00
27	PT. UIB	이 상 일		2,000,000.00
28	PT. Unicon Indo Mesin	김 송 정		2,000,000.00
29	PT. Unitra Indonesia			2,000,000.00
30	PT. Victor Jaya Raya	이 호 덕		5,000,000.00
31	YSM & Partners	이 승 민		1,000,000.00
32	대한항공	최 재 경		5,000,000.00
33	동네모임			5,000,000.00
34	백두회 회원일동		1,000.00	
35	서울메디컬	이 호 완		1,500,000.00
36	외환은행 나눔재단		10,000.00	
37	우리은행 Prestige 회원 일동		2,500.00	
38	자필목연 회원일동			5,300,000.00
39	자카르타 한국 국제학교	전 호 신		40,774,500.00
40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		1,000.00	
4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300.00	9,300,000.00
42		강 희 정		3,000,000.00
43		이 윤 상		10,000,000.00
44		김 성 우	235.00	
총 액			16,530.00	518,652,500.00



JIKS, 녁마주 마을과 남부수마트라에 온정의 손길을...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이하 JIKS)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 59,154,500 루피아와 약 1,600점의 의류를 모아 지난 10월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자카르타 CIPUTAT지역의 녁마주 이 마을과 지진 피해를 입은 PADANG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원물품과 성금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것이었다.

Ciputat 지역의 마을은 녁마주이를 생업으로하는 200호의 가구가 모여 살고 있다. 어른들은 대부분이 문맹자들이며, 기본적인 생계소득은 폐기물 수집과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과거 이들에게는 자녀교육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으나 이를 수 없는 꿈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3년 Yayasan Nanda Dian Nusantara의 Roostien여사가 마을 입구에 어린이 들을 위한 무료 Learning Center(야학)를 세우면서 자녀교육과 배움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이후 JIKS는 Roostien 여사의 Learning Centar에 관심을 갖고 학용품과 일부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모금을 통하여 지난 15일 오전에 15Kg 쌀 200부대(약 1,900만 루피아 상당)와 학생들이 모은 옷 전량(1,600점)을 전달하게 되었다. JIKS 전호신 교장 선생님은 JIKS 학생들의 관심과 사랑이 담긴 작은 물품이 마을의 주민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주민 대표도 진심어린 답례의 말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사가 있는 모임이었다.

또한, 16일은 JIKS 교장선생님 이하 학생대표 7명이 성금으로 모은 약 4천만 루피아를 한인회(회장 승은호 회장)에 전달하였다. 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지난 9월 30일 Padang 지역

의 심각한 지진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고자 구호품과 성금을 모으고 있으며, JIKS는 구호금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십시일반(十匙一飯), 밥 열 술이 한 그릇이 된다는 옛말처럼 JIKS의 학생들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직원



모두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인도네시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하나의 힘과 위로가 되었다는 것은 듣기만 해도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국제화 경쟁화의 분위기 속에서 자칫 이기적으로만 자라기 쉬운 우리 학생들이 어려운 이웃의 삶을 생각하고 돕는 것으로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주고 베푸는 삶의 가치를 배우는 장이 되었으리라.

Ciputat의 녁마주이촌과 Padang 지역 주민들이 모든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일구어 가기를 바라며, 그 외 가난과 재해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손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기대한다. 더욱이 이로서 한인사회와 인민사회가 더 깊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깊어지길 바란다.



용마, 빠당 지진 재난민에 구호물품 전달

- 지진 재난민을 위해 쌀 100톤 및 용마 매직콤(밥솥) 1천대 빠당주에 기부

인도네시아 밥솥의 대명사로 알려진 (주)용마(대표 이사 마용도회장)가 지난 9월 30일 서부 수마트라의 주도(洲道)인 빠당(Padang)에서 일어난 지진의 재난민 구호를 위해 10월 21일에 쌀 100톤(10kg짜리 10,000포대)과 자사 제품인 매직콤(밥솥) 1,000대를 빠당주에 기부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가족과 다름없는 (주)용마에서 인도네시아 소비자로부터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구호물품 기부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번 빠당 지진 재난민 구호물품은 주정부/군/시 세 곳에 나눠서 기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금번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 식량이 부족한 피해주민들에게 쌀을 기부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밥을 쉽게 지을 수 있고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자사의 밥솥인 매직콤 1,000대 또한 동시에 기부하였다.

마를리스 라흐만(Marlis Rahman) 빠당 주지사는 “용마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에 감사 드리며, 이 구호물품들이 지진의 피해로 슬픔에 빠져있는 재난민들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는 물품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주)용마는 90년대 회사의 비전과 미래의 발전을 위해 인도네시아에 진출,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밥솥을 공급하기 시작했던 회사로 자사 브랜드명인 매직콤은 인도네시아인에게는 밥솥을 통칭하는 일반명사로 자리잡을 만큼 인도네시아에 소비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자리매김을 해왔다.

(주)용마는 금번의 빠당시 구호물품 전달뿐만 아니라 아체 쓰나미 구호성금, 국립인도네시아대학교(UI) 및 국립가자마다대학교(UGM)에의 건물 기증 등 인도네시아 진출 이후 지속적으로 재난 시 구호활동 및 사회환원 활동을 해왔다.

12월 3일 비가 온다

한국 최고의 가수에서 세계 최고의 가수로 발돋움한 비(Rain)의 공연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직접 볼 수 있게 됐다. 2009 비 아시아 투어를 계기로 자카르타를 찾게 될 비는 11월 28일 홍콩공연을 거쳐 12월 3일 자카르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펼치게 된다.

금번 지난해 비의 프로모션사인 제이툰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을 성사시키고 자카르타 비 공연의 소울 프로모터를 맡게 된 W Productions(대표: Mr. Sean)은 “아시아 국가 중 한국, 홍콩, 중국, 인도네시아 4국 만을 아시아 투어 국가로 선정되었다”며 이번 자카르타에서 펼쳐질 비 공연은 현지에 잠재되어 있는 한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W Productions는 8000석을 채울 수 있는 자카르타 망가두아 스퀘어에 위치한 JITEC 공연장은 비를 사랑하는 현지 팬들로만 채우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며 이번 공연의 성공을 위해 한인사회의 많은 성원을 부탁했다.

한인회는 대형 스타급 한국 가수가 자카르타에서 공연을 하는 만큼 성공적인 공연을 위한 차원에서 W Productions에 협력, 공연에 대한 동포안내문을 발송하고 교민들이 손쉽게 티켓을 구매할 수 있도록 티켓판매처를 공지할 계획이다.



비 콘서트

일시 : 2009년 12월 3일, 오후 8시

장소 : JITEC Mangga Dua Squire

프로모터 : W Productions

리츠칼튼, 메리어트 보안 강화

지난 7월 폭탄테러로 여러 사상자를 낸 리츠칼튼호텔과 메리어트호텔이 호텔 보안을 한차원 강화했다.

호텔을 중심으로 3중 보안 시스템을 갖추게 된 두 호텔은 금속을 탐지하기 위한 X-Ray 장치, 폭탄들 탐지하기 위한 훈련견들과 차량과 소지품 등 조사를 위한 인력을 대폭 강화하여 더 이상 테러의 위협에 노출시키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강화된 보안시스템을 진두지휘 하고 있는 전 FBI 출신으로 여러국의 미국대사관과 호텔등의 보안 책임자의 경험이 있는 폭발물 전문가인 마크 워커씨다.

워커씨는 자신이 보안 책임을 맡은 곳에선 아직 어떠한 테러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호텔이용객들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하지만 그는 보다 강화된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호텔이용객의 출입이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보안 시스템 적응기가 지나면 불편한 느낌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마크 워커 씨

교민 신기엽 씨, 국민훈장 석류장 전수 받아

교민 신기엽(재인도네시아 한인회 부회장)씨가 이명박 대통령의 국민훈장 석류장을 전수받았다.

훈장은 지난 10월 16일 대사관에서 김호영 대사로 부터 대리 전수 받았다.

1972년 인도네시아에 정착후 40여년 가까이 교민사회와 함께한 신기엽씨는 최근 한인회 부회장으로서의 활발한 활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등으로 재외동포의 위상과 권익신장 노력을 꾸준히 실천한 바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훈장을 수여받게 되었다.



전수식에는 승은호 한인회장 및 임원들과 코린도 임원, 가족들이 동석해 훈장수훈을 축하했다.

신기엽씨의 이번 국민훈장은 최계월 한인회 초대회장, 승은호 회장에 이은 인니 교민사회에서는 세번째이다.

코린도 장학재단, 인도네시아대학교에 장학금수여

코린도장학재단(정무웅 이사장)에서는 지난 10월 28일 국립 인도네시아대학교에 2009학년도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동 재단은 인도네시아대학교 외에도 가자마다 대학교(UGM) 및 국민대학교(UNAS)에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이번에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가 한국어를 전공하는 학생들로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5명씩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정무웅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국가발전과 양국간의 관계증진에 필요한 인재들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으며 각 대학교에서는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왔다. 코린도 장학재단은 장학생 가운데 우수한 학생을 매년 연세대학교 학부와 세종대학교 대학원에 교환학생으로 보내는 일도 하고 있다.



교민기업 PT. BIA, 3만 9천 헥타르 팜농장 허가 받아

PT. BIO INTI AGRINDO(이하 PT. BIA, 사장 김남구)가 지난 4월 빠뿌아주 말루꾸군 지역에 약 3만 9천 헥타르 규모의 팜농장을 위한 산림부 장관의 최종승인을 받았다.

2006년도 회사를 설립, 본격적으로 허가 승인을 받기 위해 3년 동안 준비해온 이번 팜농장 승인 취득은 한인기업이 일군 큰 성과로 보인다.

PT. BIA가 허가 승인을 받은 지역은 코린도 그룹이 이미 팜농장을 조성하고 있는 ASIKI 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PT. BIA의 김남구 사장은 2010년 5천 헥타르에 대한 벌목과 농장 조성을 시작으로 팜농장 조성을 단계적으로 마무리 하고, 자체적인 CPO 공장을 자체 건립하여 약 30년간 400만톤의 CPO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사장은 농장 지역에서 연간 10~20만 m3의 원목을 생산하고, 바이오매스용 5~8만톤에 대해 부가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 베니어, 우드칩, 펠릿 등으로 가공하고 팜 슬러지등을 이용하여 브리켓을 생산하여 내수판매 및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글이 좋아~

한글세계화재단 정순훈 총장
자카르타 방문

지난 10월 20일 배재대 총장이며 한글 세계화재단 이사장인 정순훈 총장이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한글의 국제화와 효과적인 보급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했다.

하나학원 원장겸 인니 송출청 한하 한국어 강사 연수 책임자인 박진려 씨가 정순훈 총장과 동석, 한국어 세계화 포럼 및 한국어 교육 경영자 협의회 등 한국어 육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정순훈 총장은 정부측이 아닌 학원 및 민간 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비즈니스 차원의 한글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지금 시대의 흐름과 맞다고 말하며 한국어 사업화를 위한 전세계 한글 교육자 간의 네트워크도 고



한글이 새겨진 옷을 들고 있는 박진려씨와 정순훈 총장(왼쪽부터)

려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글이 좋다' 라고 새겨진 옷 400여 벌을 한국으로부터 직접 들여온 정 총장은 한국어를 사랑하는 현지인들에게 배포해 한글 교육의 동기를 배가시켰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부인회, 한국 음식 강습 시작

부인회에서는 9월 7일(월) UI 대학교 한국어과 3학년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자카르타 세노빠띠에 위치한 한국 음식점에서 한국 음식 만들기 강습을 개최했다. 이번 음식 강습은 내년 4월 말에 부인회 주최로 열릴 한국 음식 만들기 대회를 준비하는 강습중의 하나로 내년에는 매주 현지인과 인니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부들을 대상으로 강습을 가질 예정이다. 이 한국 음식 만들기 대회도 물론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 예정이며 그들에게 김치를 비롯한 한국 음식과 문화를 알려나갈 계획이다.

강습일 UI 한국학과 학생들의 높은 참여와 호응으로 인해 시종 화기애해 한 강습시간이 되었다.

부인회 홍미숙 회장의 인사말과 아울러 김치의 우수성, 특히 유산균의 효능에 관한 강의가 있었고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부인회 서기인 양순금씨(대학에서 전통조리 전공)의 강의로 실습이 진행되었다. 또한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임에도 선뜻 장소와 모든 준비 절차를 도맡아 후원해준 오영란씨와 부회장등 임원들이 진행을 도왔다.

부인회는 이번 첫 강습을 시작으로 한국음식에 관심이 있는 현지인들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강습을 통해 한국 음식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락처:

류경희: 0817 155 864

홍미숙 : 0816 189 4919

오영란 0815 1149 1004

양순금 : 0888 181 5660





반동한인회가 교민들이 많이 모여사는 Setrasari Kulon 지역으로 이전했다. 1층은 교민들의 만남의 장소, 의견이 오가는 소통의 장소로, 2층은 한글학교로 활용 할 예정이다.

반동한인회 새로 이전

반동한인회(회장 엄정호)사무실과 한글학교가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 지난 10월 23일 어린이, 청소년을 비롯 반동교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관식이 열렸다.

새로 이전한 장소는 교민들이 많이 모여사는 Setrasari Kulon 1 No.3 에 위치 하여 1층은 교민들의 만남의 장소, 의견이 오가는 소통의 장소로, 2층은 한글학교로 활용 할 예정이다.

1층 한인회 사무실과 앞 마당은 최대 80여명까지 모일 수 있어 간단한 친분모임에서 교민을 위한 강좌, 자녀 돌잔치 및 경로 행사등 반동교민을 위한 모임의 장소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층 한글학교는 4개의 교실과 도서관으로 구성되어 학생들과 여성교민들이 자유롭게 독서 할 수 있고 대여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계획이다.

그 간 반동한인회 사무실은 코리안마트(사장 김승재)에서 무상으로 4년이상을 지원 받아 사용하였으며, 한글학교는 반석교회 선교관을 빌려 운영하였다.

이 날 행사는 모친상으로 인한 엄정호 회장 부재로 대신한 김재용 수석부회장(PT.Sarana Bintang Abaditex대표)은 인사말에서 한인회장, 고문, 자문위원 등 한인회 관계자들의 노고의 감사의 말과 비로소 작지만 반동 한인들이 언제나 모일 수 있는 장소를 마



련하여 뜻깊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랬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좋은 의견은 언제나 환영한다고 전했다.

이 날 한글학교 송태홍 교감선생님은 반동에는 한글교육이 절실히 필요한 50여명의 어린이가 있으며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 이며, 한글학교 자원봉사를 원하는 분들의 연락과 도서확충 및 교육기자재의 지원 기증을 기다린다고 했다.

새롭게 이전한 반동한인회는 반동교민들의 대표 대변기관으로 어린이 한글교육을 역점사업으로 정하고 교민의견 청취, 고충처리 및 민원해결을 위하고 교민 화합과 발전을 위한 의사소통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한인회 연락처는 한인회 사무실(사무총장 강석희 022-200-688 / 0813-202-47878) 이다.



중부자바한인회, 풍성한 한가위 한마당 열어

중부자바한인회(회장 김재훈)는 고국의 대명절이 한가위를 맞아 많은 교민들과 함께하는 잔치 한마당을 열었다. 추석명절로 인한 교민들의 고국방문이 많아 보다 많은 교민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10월 11일에 행사를 진행했다. 한인회 회원사와 교민들 120여 명이 참여하고 열광적인 호응으로 이날 한가위 잔치는 어느때 보다도 보다 풍성한 자리가 되었다.

웃놀이와 제비뽑기 등 우리 전통놀이와 곰벨 골프장에서 열린 전교민 화합 골프대회를 통해 잠시나마 피로를 잊고 행복

을 나눌 수 있었으며 또한 많은 회원사들이 찬조해온 갖가지 상품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졌다.

김재훈 회장은 “화합과 참여로 한인들의 위상의 높이자”라는 말로 인니 전체 한인사회의 모범이 되는 것은 물론 대인니 정부와의 돈독하고 성숙한 관계 정립과 또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한류를 위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지난 9월 남부 수마트라를 강타한 강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현지인들에게 작으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자발적인 성금을 모금, 참여한 모든 교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아름다운 온정의 광경을 선사했다.



한가위 골프대회 수상자 명단

메달리스트 : 박 동신(남) / 정 진주(여)
 우 승 : 이 희권(남) / 한 지연(여)
 퍼스트러너 : 양 복중(남) / 김 학례(여)
 세컨드러너 : 배 중원(남) / 이 영선(여)
 롱기스트/리어리스트 : 이 현우(남) / 윤문섭(남)

* 지면 관계상 직함 및 세부사항 생략

홀인원을 축하합니다.

금년 르바란 기간 중 9월23일 헛세드 유성천 사장과 9월 24일 김학례 씨(빠르띠위 임종학 사장 부인) 양 일간 각각 동 골프장에서 홀인원 했다.

유성천 사장(현 중부자바 한인회 부회장)께서 08년12월부터 09년 말 내에 홀인원을 한 분들께 포상금 천만 루피아를 수여하기로 약속한 후 현재까지 총 3명의 교민이 해당 포상금을 받게됐다.

중부자바 한인회는 이 지면을 통해 홀인원 하신 분들께 축하를 드리며, 유성천 부회장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행사 할 수 있도록 지원 및 협찬해주신 모든 회원 사 및 관계 사분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슬람의 젓과 꿀의 과일 Kurma

9월부터 시작되었던 금식기간도 끝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르바란 휴가도 끝나고 어느새 벌써 10월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나긴 휴가가 지나고 나사가 하나둘 빠지던 직원들 가정 부들 운전기사들도 다시 직장으로, 집으로 돌아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을 하는 시기입니다. 라마단기간에 슈퍼에 가 보니 박스째 쌓아놓고 파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과일, 이름하여 kurma. 박스안에 포장되어 있어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무슨 과일인지 알기 힘들어 하나 사서 먹어보았습니다. 으악.. 정말 설탕도 이리 달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해줄 정도로 답니다. 우리나라 꽃감 같기도 하고 대추 같기도 하고 너무 달아 한번에 3개 이상 먹기 힘들지만 자주 먹어보니 나름 단맛의 중독이 느껴지는 과일입니다. 이슬람의 아버지 마호메드가 금식이 끝나면 먹었다고 하여 이슬람에서는 꾸르마를 먹음으로 금식을 풀다고 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나 그들의 거룩한 선지자가 금식을 풀면서 처음으로 먹은 것이 꾸르마였다는 것에 그대로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슬람의 젓과 꿀의 과일, 꾸르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kurma의 학명은 Phoenix dactylifera Griff입니다. 꾸르마의 식물학적 계층구조를 살펴보면 외떡잎식물 종려목 야자나무과 야자나무속의 상록교목입니다.

꾸르마의 원산지는 메소포타미아 부근이 원산(原産)으로 추정되는데, BC 3000년 무렵 이미 재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중동에서 아프리카의 건조열대·아열대에 걸쳐서 많으며, 최근에 이르러 북아메리카의 건조지에서도

많이 재배됩니다. 건조된 꾸르마는 꿀이나 설탕에 절인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달콤하고 영양분이 풍부하여 여행자에게는 중요한 식량자원이었으므로 유사 이전부터 이집트에서 재배하였습니다. 지금도 지중해, 홍해 연안,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의 사막지대에 적합한 지역이 있어 이곳의 중요한 산업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세기말경 이를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의 건조지대에서 중요한 과수의 하나도 재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의 유목민인 베드윈 족은 말린 꾸르마를 유일한 식량으로 삼고 있었으며, 지금도 꾸르마를 “생명의 나무”라 하여 숭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주민들이 흔들었던 종려나무 가지는 꾸르마의 잎을 말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kurma로, 히브리명으로는 tamar, 그리스명은 phoenix, 영명은 date palm, 독일명은 Dattelpalme라 하는데 대추같은 열매가 달리는 야자나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이를 대추야자라 부릅니다.

꾸르마의 생김새를 살펴보면 한국의 대추와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길이는 3.4cm 정도의 크기이며 지름은 보통 2cm 정도 되는 달걀모양입니다. 아직 덜 익었을 때의 꾸르마 열매는 녹색을 띄고 단단하지만, 늦여름이 되면 잘 익게 되고 색깔도 황갈색 혹은 적색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꾸르마는 건조시킨 상태에서 가공된 것인데 건조한 것은 설탕에 절임한 것으로 착각할 만큼 달콤하게 변합니다.

겉모양은 건조가 되면서 쭈글하고 주름이 쳐있으며, 색깔은 갈색과 검은색의 중간 톤으로, 마치 카라멜이나 꿀에 절

이슬람의 젓과 꿀의 과일 Kurma

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끈적거립니다. 꾸르마 안에는 작은 씨가 들어있습니다.

당도의 측정 기준인 Brix로 할 경우 꾸르마는 평균 30정도입니다. 평소에 아주 달다라고 생각했던 초코렛이 25정도, 파인애플이 평균 17, 바나나가 16, 사과, 복숭아가 12~13정도이니 대추야자가 어느 정도 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달아서 못먹을 정도로 달다고 보시면 됩니다.

꾸르마를 한의학에서는 대조(大棗)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조는 대추의 한방명칭으로 같은 종은 아니지만 그 효능과 성미는 비슷합니다. 대조를 한의학적으로 살펴보면 성은 온(溫)하고 미는 감(甘)하며, 귀경으로는 족궤음간경, 족태음비경, 수소음심경, 족양명위경이 됩니다. 효능으로는 보익심혈 양심안신(補益心血, 養心安神), 치영위불화(治營衛不和)하며, 특히 보혈안신(補血安神)작용이 강합니다. 인체는 血에 관한 장부는 심/비/간이 주로 관련되어 있는데, 심주혈, 비통혈, 간장혈하므로 血이 쫄아있는 모든 질환에 대조가 효과적으로 쓰이며, 주로 허증에 사용합니다. 위장병, 빈혈, 불면증, 전신쇠약 등에 좋으며 장복하면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대추가 가지고 있는 신경완화 작용은 긴장을 풀어 주고 흥분을 가라앉혀 주므로 수험생에게 특히 좋습니다. 또한 식욕부진이나 소화불량인 사람이 복용하면 속이 편안하고 위장의 기운을 북돋워주며 식욕을 촉진시켜 줍니다.

꾸르마의 성분분석(대추야자 100g당 평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탄수화물	78~80 % (포도당39, 과당34%)
수분	10~14 %
단백질	2.1 %
미네랄	1.8 % (칼륨670, 인74, 칼슘42, 마그네슘58, 철분1.5/mg 등)
지방	0.1 %
비타민	A, B1, B2, B6, B12, C, D
열량	329 Kcal



특히 꾸르마에는 비타민B가 풍부하여 시신경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눈의 젊음을 유지하고, 미국 안과 협회의 추천 식품으로 항상 선정되는 대추야자는 눈이 피로한 수험생과 직장인들, 시력이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특히 뇌의 에너지, 포도당이 풍부해 뇌세포를 증가시키고 활동을 원활히 해 집중력을 향상 시키며, 섬유는 장내 양성균의 활동을 도우며 불용성 섬유가 배설물의 양을 늘리고 쾌적한 배변을 촉진합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의 음식으로 꾸르마를 달여 먹으면 몸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 피부가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염산, 천연 콜라겐, 에스트로젠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세포 재생을 도와 부드럽고 유연한 피부로 만들어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노인들에게는 무병장수를 돕는 강장제로 쇠약해진 몸에 원기를 회복하도록 도와주며, 15가지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23가지의 아미노산 및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어 성장기 어린이의 영양공급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막의 거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꾸르마는 중동에서 '신의 선물'로 불립니다.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도 잘 자라 과거에 주요 식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나무와 잎사귀는 건축자재로, 각종 생활 도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도 꾸르마는 인기 만점의 간식으로 판매됩니다. 르바란 전후를 맞이하여 시장마다 쉽게 구할 수 있지만 한 철에 한 번 수확이 가능하며, 9월에만 볼 수 있는 과일입니다. 꾸르마는 열매 자체에 천연과당이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달콤한 맛이 나서 요리나 차를 만들어 먹어도 좋으며, 와인 안주거리(진한 레드와인과 잘 어울릴 듯 합니다)등등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내년 라마단 기간에는 금식기간이 끝난 후 꾸르마 한 바스를 사다놓고 주변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하나씩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면.. 더욱더 따뜻한 정이 쌓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솔한의원 원장 김효영

vitavic@naver.com/ 021-7278-7410



Bapak. 마헨드라

인니수출입은행 CEO



IEB는 인니수출진흥 위한 전략적 기구

수출금융 및 인니상품 구매 해외 수입업자들
금융지원 가능성 열어둬

인니진출 한국은행들 컨소시엄 형성 통해
수출보험보장 등 서비스 가능성 내비쳐

오는 11월 10일 교민 대상 IEB 설명회 개최



지난 9월 출범한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Indonesia Eximbank. 이하 IEB)은 인도네시아 수출 진흥을 위해 설립된 국책은행으로 수출기업들의 운전자본 및 원자재 구입비용 지원, 수출보증 및 보험과 해외 수입업자들에 대한 지원등 다양한 금융지원책을 강구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시 경제조정부장관을 겸임하고 있었던 재무부 스티리 물리아니 장관은 경제조정부의 차관이었던 마헨드라(Mahendra Siregar)를 새로운 IEB의 Chairman겸 CEO로 임명하였다. 그는 새로운 직책을 맡자마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G20 회의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 중에도 인도네시아 한인사회에 수출입은행을 소개해 달라며 한인상공회의소가 제안한 인터뷰를 흔

쾌히 수락하였다. 인터뷰는 그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서 돌아온 직후인 10월 9일 금요일 오후 2시에 증권거래소 건물 8층에 위치한 IEB사무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사관의 오송 공사참사관, 상공회의소 김육찬 사무총장 및 남지화 간사 그리고 한인뉴스가 동석했다.



한인사회를 대표하여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경제조정부 차관으로 재직하시는 동안 보내주신 무역투자 뉴스도 잘 받아보았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먼저 마헨드라씨의 개인적인 백그라운드와 개인 소개를 해달라.

1986년 인도네시아대학교(이하 UI) 경제학과 졸업 후 외교부 입사하여 외교관으로 활동했었다. 외교부에서 해외파견 근무 전에 호주 모나쉬 대학에 보내져서 1991년 경제학 석사과정을 밟았고, 첫 번째 해외 근무지인 런던에서 경제 담당 2등 서기관으로 1995까지 근무한 후 귀국해 외교부 기획이사로 근무했다. 그 후 경제분야에서 기획, 관리분야로 옮겨 근무했다. 이후 워싱턴에서 홍보담당 참사관(Information Counselor)으로 1998년부터 2001까지 근무했으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경험을 쌓았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돌아왔다.

9.11 현장에 계셨던 건가?

아니다. 세계무역센터는 아니고 워싱턴에 있었다는 것이다. 워싱턴이 그리 넓지는 않으니 가까운 곳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그 때 미국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전에는 매우 개방적이었는데, 그 후로 모두를 의심하고 경계하게 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어쨌든 2001년 메가와티 대통령이 도로자툰 꾀조로작띠를 경제조정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도로자툰 장관의 요청으로 경제조정부로 옮겨가게 되었으며, 그 다음의 후임 장관들-아부리잘, 부디오노, 스리 물리아니로 이어지기까지 계속 경제조정부에 있었다. 아마도 나를 외교부로 돌려보내는 것을 잊은 듯하다.(웃음) 그리고, 나는 지난 9월 1일 스리 물리아니 장관으로부터 수출입은행의 회장이자 CEO로 임명되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수출입은행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한다.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닌 듯하다. 아직도 입구로고는 인도네시아 수출은행(Bank Export Indonesia)이던데.

사실 새로운 건 아니고, 예전 인도네시아 수출은

행(Bank Export Indonesia)이 수출입은행(Indonesia Eximbank)으로 새 단장한 거다. 예전 수출은행은 기본적으로 은행이다 보니 이윤을 추구하고, 은행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외국정부나 다국적 에이전시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지 못하고, 중앙은행(Bank of Indonesia)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주 기능은 L/C제공 업무이지 수출 보험을 포함해 어떤 보험이나 보장도 발행할 수 없었으며, 운전자본 제공에도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름에서 시사되듯 기본적으로 수출만 담당하지 수입은 취급하지 않았다.



이제는 그 기능과 권한(mandate)이 넓어졌다. 수출입은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만 세계적으로 알려진 트레이드마크라서 사용할 뿐, 더 이상 은행이 아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이름을 사용한다.

편의상인가?

편의상이기도 하고 법으로 규정된 사항이기도 하다.

이제 IEB는 더 이상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 은행이 아니다. 물론 우리도 재정이 있고, 건전한 재무제표, 소득, 대차대조표를 가져야 하지만, 주 기능은 인도네시아의 수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의 수출지원을 위한 전략적인 목적이 거의 모두 주어졌다. 수출을 증진시키고 수출업자를 증가시키고, 특히 중소기업

업에 대한 지원 및 수출품목과 수출국을 다양화하고 다변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기능이고, 따라서 그에 맞는 더 많은 위임과 권한을 부여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기업에 더 많은 운전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보험과 보증을 제공하며 채권을 판매한다거나, 정부와 외국정부, 다국적 에이전시 등 재원(財源)을 다양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상업은행의 한계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기능이 부여되어 그런 점이 기존의 일반 은행과 다르다.

운전자금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여쭙보겠는데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인가 아니면 L/C같은 걸 제공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운전자금이 라고 하거나 자금 제공이라고 하면 post shipment, 즉 선적 후의 자금제공이 이뤄지지만 우리는 pre-shipment나 pre-export 금융이 가능하다. 또한 수출품 생산을 위해 들어가는 원자재 구입자금 등, 투자자금 지원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상업은행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차이를 메워 주는 개념이다.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신규회사나 은행에 접근이 어려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한국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수출품 제조를 위해 원료를 먼저 자비로 해결하여 제품을 제조하고 판매한 후에야 자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원자재 구입 자금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고객들에게 종합적인 패키지를 제공하려고 한다. 수출금융뿐만 아니라 인니 상품을 구매할 해외 수입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가능하고 많은 리퀴디티를 제공하기 보다는 상업은행들이 제공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서비스들 간의 차이를 메우는 역할을 하려



마헨드라 인니수출입은행장과의 인터뷰에서
왼쪽부터, 오송 대사관 공사, 마헨드라 수출입은행 CEO, 남지화 한인상공회의소 간사, 김육찬 한인상공회의소 사무총장

고 한다.

지금 인니에 진출해 있는 한국 은행들과 한국 수출입 은행과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수출보험이나 보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수출입 은행 및 한국은행들과의 미팅도 주선해 주었으면 한다.

그렇다면 수출입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기 위해 어떤 절차와 또 누구와 접촉해야 하나?

마침 우리 은행은 지금 사회홍보(Socialization) 주간이다. 상세한 실무 관련 내용은 자리를 마련해서 저나 저희 직원들이나 직접 가서 설명해드릴 수 있다.



인터뷰에 참석한 분들이 차관시절 해외담당이었던 마헨드라씨와 오래 전부터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터라 인터뷰는 시종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고 대사관과 상공회의소 모두 한인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점에서 한 마음이였기에 인터뷰는 곧이어 세미나에 관한 실질적인 준비사항 논의로 옮겨갔다.

마헨드라씨는 또한 한국이 차기 G20 의장국인 점에 환영을 표하고, G20회원국 중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G7도 아니고 BRICs도 아닌 국가로서 서로 더욱 협력

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앞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입은행을 많이 이용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상공회의소와 대사관의 오송 공사참사관은 우리 기업들이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책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수출업체가 많은 봉제협의회, 신발협의회 및 금융협의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 설명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으며 마헨드라씨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설명회 일자를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관심있는 교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인니 수출입은행 설명회 개최합니다

행사명: 인도네시아 수출입은행(Indonesia Eximbank) 설명회
 일시: 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11:00 ~ 14:00(설명회 후 오찬)
 장소: Sultan Hotel Asean Room 6-9, Jl. Gatot Subroto, Jakarta
 문의: 한인상공회의소 남지화 간사(전화: 021-527-7539)
 관심 있으신 교민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재인니한인상공회의소



수까르노 골드

글: 김 문 환

제2차대전이 끝나기 몇 달 전, 필리핀 루손(Luzon)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아마시타 도모유키(山下奉文) 장군은 지연작전을 펴고 있었다. 그 동안 일본 황실의 여러 최고위 왕자들은 후에 다시 찾을 요량으로 약탈한 상당량의 금괴와 보물들을 인근의 동굴과 터널에 숨겨왔다. 이 보물들은 아시아의 12개국에서 수백 년 동안 축적된 부를 강탈한 전리품이었으며 왕자들의 감독아래 섬 전역에 175개의 황실 보물창고가 건설되었다. 그리고 1945년 6월 초 창고건설을 담당한 175명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벽을 따라 금괴로 가득 찬 거대한 220피트의 지하 동굴에서 송별파티를 열고 있었다. 한 밤중이 되어 아마시타 장군과 왕자들이 슬며시 빠져나간 사이 터널에서 다이내마이트가 터졌고 엔지니어들은 모두 생매장되었다. 그리하여 그 창고는 비밀 속에 묻히게 되었으며 그 직후 왕자들은 잠수함을 타고 일본으로 탈출하였고 3개월 후인 9월 2일 아마시타 장군은 미군에 투항하였다. 그러나 1943년부터 2년간 왕자

의 하인으로 종사하며 이 비밀을 알고 있던 필리핀 현지인 벤 발모레즈는 다행히 왕자가 목숨을 구해 주어 ‘아마시타 골드’의 비밀을 알고 있는 극소수의 생존자로 남게 되었다. 종전 직후인 1945년 말 미국 CIA의 전신인 OSS가 아마시타의 운전수였던 고지마 소령을 고문하여 금괴 일부를 확보하게 되며, 이 덕분에 워싱턴 당국은 비밀작전을 전개하기 위한 무제한적인 자금을 확보하여 국외에도 공작자금으로 제공하였다. 당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트루먼 대통령, 맥아더 원수, 덜레스 국무장관 정도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뒤를 이은 미국 대통령들이 거의 망라되어 이 비밀들을 인수인계하여 왔다. 즉 트루먼의 후임자인 아이젠하워는 물론 클린턴, 부시 대통령 부자에 이르기까지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상은 폭로 전문기자인 스텔링(Sterling Seagrave)과 페기 시그레이브(Peggy Seagrave) 부부가 2002년 공동 집필한 <골드 워리어스(Gold Warriors)>를 2003년 9월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간한 <야마시타 골드(Yamashita Gold)>라는 책자의 줄거리를 소개한 내용이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지' 기자 출신인 작가 스티어링 시그레이브는 1981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라오스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까지 죽음을 유발했던 생물학적 독소를 밝혀냄으로써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인물이다. 1832년 이래 미얀마에서 의료선교사와 교육자로 활동했던 집안의 5대손인 스티어링은 중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에서 성장하여 미얀마, 인도,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 페기 시그레이브는 워싱턴에서 태어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케네디 대통령 도서관과 국립문서보관소, 스미소니언 연구소를 거치며 역사서 발간에 참여하였다. 오랫동안 스티어링의 협력자였던 페기는 그와 팀을 이루어 『송씨 왕조』와 청나라 서태후의 이야기를 다룬 『Dragon Lady』를 공저하였으며 현재 그녀는 스티어링과 함께 유럽의 집과 아시아를 오가며 살고 있다. 시그레이브 부부는 일본 황실과 미국 정보기관이 관련된 엄청난 음모를 폭로하면서 그들의 목숨을 담보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만약 자신들의 신상에 무슨 변고가 생기는 경우, 그 가해자는 이 소설과 연관된 조직일 것이라는 전제를 달아 놓았다. 이 이야기의 주 무대는 중국과 필리핀이지만 12개국의 약탈 대상국들 중엔 인도네시아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필자는 이 이야기를 인도네시아에 초점을 맞춰 조명해보고자 한다.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5년 6월, 패전을 목전에 앞둔 필리핀 주둔 제14방면군(方面軍) 사령관 야마시타 도모유키 대장은 아시아 각국에서 약탈한 어마어마한 양의 금괴가 숨겨져 있는 루손섬의 험준한 산악지대를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실제로 그 작전을 지시한 사람은 히로히토(裕仁) 천황의 사촌 동생인 다케다 왕자(竹田宮)였다. 아시아의 보물약탈 작전명인 '골든 릴리(Golden Lily; 황금백합)'의 최고위직 책임자는 히로히토 천황의 삼형제 중 바로 밑 동생인 치치부(秩父宮) 왕자였으며 그를 중심으로 막내 동생인 미키사 왕자, 그리고 사촌들인 다케다 왕자, 아사카 왕자가 관련되어 있었다. 특히 점령지 현장을 중형무진 누비며 금

괴 약탈작전을 직접 지휘한 사람은 다케다 왕자였으며, 그는 '킴수'라는 가명을 쓰며 중좌(중령) 계급장을 달고 다녔으며 '아다치'라는 이름을 가진 대좌(대령)를 부관으로 데리고 다니며 주로 마닐라에 머물면서 모든 작전을 지휘하였지만 도쿄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방콕, 사이공, 자카르타 등지를 자주 드나들었다. 당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많은 금이 생산되는 지역은 서부자바 남단의 찌꼬톡(Cikotok)이었는데 이곳과 지척인 벨라부한 라뚜(Pelabuhan Ratu)에 바로 서부자바 지역을 관장하는 일본군 제27여단 사령부가 들어섰다는 사실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닌 듯 하다.

야마시타 장군과 일본 황실이 관여한 금괴 은닉작전이 사실임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야마시타가 은닉한 지하창고와 보물들이 발굴되고 있다는 보도가 최근에도 연이어 터져 나오기 때문이다. 1970년대 필리핀 마르코스 정부가 인양한 보물선 나지이호도 치치부 왕자가 숨긴 172개 비밀 병커와 보물의 일부라는 것이며, 이 같은 '야마시타 전설'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도 군산 앞바다나, 거제도 앞바다에는 야마시타의 금괴선이 침몰해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전기를 보면, 박 대통령이 '효자동 이발사'로 유명한 전속 이발사 박모씨가 일제 시대의 보물지도를 들고 와 보물을 찾겠다고 건의하자 박 대통령이 일정액의 자금을 지원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전직 다큐멘터리 작가인 정충제라는 사람이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건축폐기물업체 거창산업주식회사 부지에 있는 수평굴에서 동업자였던 백모씨가 자신에 대한 '이용 및 접근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 놓고는 이미 보물을 도굴해 갔다 하여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는 사례가 이를 말해 주듯이 일제가 한반도 지역에도 보물을 은닉했다는 방증은 여기저기서 확인되고 있다. 당시 일본군은 중국에서 약탈한 금괴와 보물들을 상하이를 통해 해상으로 일본 본토로 반입하거나 만주 지역에서 약탈한 보물은 육로를 통해 한반도를 경유하여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실어 날랐으나 전쟁 후반기부터 연합군에 의해 해상봉쇄를 당하자 채 운송이 되지 않은 보물들을 임

천황이 항복을 선언한 지 17일이나 경과한 1945년 9월 2일이 되어서야 천황의 직접 명령을 받고 투항하기 위해 필리핀 북부 바귀오 정글에서 나오는 야마시타 대장과 그의 참모들.

시로 부산 지역에 은닉하였다는 것이다.

도쿄를 비롯한 일본군 점령지였던 동남아 각 지역에서 태평양전쟁 전범들에 대한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6년, 유독 마닐라 법정에서는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어 이 지역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야마시타 대장이 “나는 도쿄 녀석에게 속았다.”라는 마지막 절규를 외치며 2월에 가장 먼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종전 당시 야마시타 대장의 직속 부하로 필리핀 포로수용소장이었던 한국출신 홍사익(洪思翊) 중장도 4월 18일 자로 사형을 선고 받아 9월 26일 역시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이외는 반대로 A급 전범자들을 다루는 소위 ‘도쿄재판’이라 일컫는 극동국제전범재판소에서는 3년이 경과한 1948년 12월 23일에 이르러서야 도쿄 히데키(東條英機) 수상을 비롯한 A급 전범 7명만이 처형된 것과 극명하게 비교가 되는 것이다. 그럼 왜 유독 필리핀 주둔 일본군 지휘관들이 서둘러 처형된 것일까? 이에 대한 물음은 야마시타 장군이야말로 황실의 금괴와 보물 은닉작전이 이루어진 필리핀 주둔군 사령관으로서 이 비밀을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는 최고 지휘관이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나온다. 그리고 전쟁 책임의 최정점에 서있던 천황을 비롯한 황실 식구들은 어느 누구도 전범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고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 등 무기수 17명은 공산당 척결에 조력한다는 조건으로 전원 석방되어 이들은 전후의 일본정계를 장악하기에 이른다.

특히 고다마 요시오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 인도차이나, 삼(태국), 말레이시아,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의 갱단들과 협상을 담당하는 ‘골든 릴리’의 가장 유력한 창구였던 탓에 미국 정보당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야마시타 골드’ 환수작전에 협력하는 대가로 사면을 받게 된 경우이다. 고다마는 땅딸막하고 탄탄



한 체격에 얼굴에는 심한 흉터가 있어 외모로부터 우선 직업적인 싸움꾼으로서의 면모를 풍겼다. 그의 손은 가라데로 단련되어 무쇠처럼 보였으며 어느 누구도 쓰러뜨릴 수 있을 것 같이 보였다. 그는 후쿠시마(福島)현 니혼마츠(二本松)의 몰락한 무사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여덟 살 되던 해인 1920년 한국에 살고 있는 친척집에 보내져 소년시절을 보내며 당시 3년제인 경성상업전문학교(京城商業專門學校)를 졸업하고 함흥의 한 체철소에서 막노동 일을 하며 바닥인생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직후 일본으로 돌아가 야쿠자가 되어 노조 간부들을 공격하는 일을 도맡아 했다. 그는 극우단체인 겐요우샤(玄洋社)의 총재인 도야마 미쓰루(頭山滿)의 총애를 받았지만 1931년 2월 육군 청년장교들과 우익 민간인들이 결탁하여 이노우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 전 대장상을 암살한 ‘혈맹단사건’에 연루되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도야마는 1년 만에 석방된 그를 만주로 보내 봉천(奉天) 특무기관장인 도이하라 겐지(土肥原賢二) 장군을 위해 굶은일을 하기도 하였지만, 같은 해 그는 도쿄로 다시 돌아와 ‘독립청년사(獨立靑年社)’를 결성하

여 일단의 해군장교와 육사생도들에 의해 자행된 5.15쿠데타 당시, 6개소의 변전소 파괴를 획책했다는 혐의로 또다시 투옥되어 3년 반 동안 감옥에서 지내야 했다. 그리고 1937년 4월 도야마의 제안에 따라 그의 폭력적인 에너지를 중국의 지하세계를 장악하는데 투입한다는 조건으로 도이하라 장군의 도움을 받아 석방된다. 1938년 그는 해군 촉탁의 신분으로 변신하여 1941년 상하이에서 흑막에 가린 '고다마 기관(児玉機關)'을 설립한다. 이 기간 동안 고다마는 철강, 소금, 비밀병기 등의 전략물자를 해군항공본부에 납품하는 일 외에 헤로인 거래까지 장악하여 모든 이익은 고다마 자신의 취급 수수료만 빼고 '골든 릴리'조직으로 넘겼다. 고다마의 궁극적인 직속상관은 치치부 왕자와 친황이었다. 왕자들이 갱단을 직접 상대하기는 곤란했기에 고다마가 황실을 대신해 약역을 맡은 것이다. 그는 갱단들로부터 금괴를 넘겨받고 헤로인을 넘겨주는 방법으로 마약을 금괴로 탈바꿈시켰으며 중국 갱단들이 그 금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고다마 기관'이라는 조직 이름으로 갱단에게 마약을 건네주고 금괴를 받았으며, 백금을 제외한 모든 예술품, 금괴, 보물을 황실에 넘겼다. 이후 루비, 사파이어, 다이아몬드도 자신의 사유물로 챙기게 된다.

종전 후 A급 전범으로 체포되었던 기시 노부스케와 고다마 요시오 등은 맥아더 사령부에 협력하는 대가로 불기소 처분되어 후일 기시는 수상으로 장수하였고 고다마는 정계의 막후 실력자가 되어 '친황제 유지'라는 조건부로 1955년 하토야마 이치로(鳩山一郎; 하토야마 유키오 현 수상의 조부)에게 자민당 창당 자금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1959년 그의 하부조직을 시켜 일본을 방문 중인 수까르노 대통령에 대한 경호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데위(Dewi)를 대통령에게 소개시켜 준 연결고리이기도 하였다. 1965년 한일회담 당시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만주군 군 인맥을 동원하여 기시 수상, 시이나 외상, 그리고 야마자키 도요코(山崎豊子)의 대하소설 '불모지대(不毛地帯)'의 실체 모델로 이토츄(伊藤忠)상사 회장을 역임한 세지마 류조(瀬島龍三) 등을 내세워 '한일협력위원회'를 결성하여 한일회담 성사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1976년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 '록히드 스캔들'이 폭로되어 다나카(田中角榮) 수상은 수뢰혐의로, 고다마는 탈세와 외환관리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골든 릴리' 작전의 최고위직 하수인인 고다마 요시오(児玉誉士夫). 그는 오늘날 북핵문제에 자극을 받아 일본의 재무장을 주장하는 일본 극우단체의 원조 격인 겐요우사(玄洋社)의 총재 도야마 미쓰루(頭山満)의 총애를 받아 흑막 속의 정치인으로 성장해, 전후 일본정치는 물론 한국 및 인도네시아 정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 된다.

중 고다마는 최종판결 직전인 1984년 1월 사망하였고 다나카 수상은 유죄판결을 받은 2년 후인 1985년 뇌졸중으로 사망하고 말았다.

한편 제2차대전의 전운이 감돌자 식민지 인도네시아의 지방 토후(Bupati)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괴를 유럽의 은행으로 도피시키기 시작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당시 네덜란드령 동인도 지역에서 가장 많은 금을 생산하는 곳은 서부자바 남부에 위치한 찌코톡(Cikotok) 지역이었다. 찌코톡 주변의 왕족 후손들은 금을 매집하여 부를 축적하였으며 일본의 침략을 앞두고 서둘러 스위스의 은행 등지로 도피시켰다. 이 당시 반식민주의 저항운동의 선봉에 섰던 수까르노에게도 지방 토후들의 금괴가 넘어 갔으며, 수까르노는 이 보물을 혁명자금(Dana Revolusi)이라는 명분으로 지원받았고, 이 자금의 일부가 스위스의



은행에 비밀리에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왔다. 메가와띠 대통령은 재임 말기인 2004년 부친이 남기고 간 혁명자금, 즉 ‘수까르노 골드’를 찾겠다고 측근들을 유럽은행에 파견하였으나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적이 있었다. 이 이야기와 맥을 같이하여, 1965년 9.30사태로 역쿠데타에 성공한 수하르토 정권의 하수인들은 수까르노가 숨겨 놓은 금괴를 찾기 위해 수까르노의 최측근인 수반드리오(Subandrio) 제1부수상을 회유하게 된다. 당시 수하르토 장군의 젊은 보좌관이던 무르디오노 소령은 감옥에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수반드리오를 면회하여 은닉된 자금의 소재를 추궁하고 있었다. 수 차례에 걸친 회유와 협박 끝에 실제로 일부 자금이 환수되자 수반드리오는 사형에서 감형되어 평생을 무기수로서 보내다 1995년 8월 16일 독립기념일 특사로 석방된다. 수까르노 정권 말기에 제1부수상으로서 외무부장관, 중앙정보부장 직을 겸임하여 정권 제2인자로 부상 하였던 수반드리오는 애초 수판 샤흐리르(Sutan Sjahrir) 수상이 이끄는 사회당원(PSD)으로 활약하였으나 1957년에 수까르노의 국민당(PNI)으로 전향하여 5개 국어에 능통한 어학실력을 주무기로

천황의 사촌동생인 다케다 쓰네요시 왕자(竹田宮 恒徳王)는 천황의 바로 밑동생인 치치부 왕자(秩父宮 雍仁親王)의 지시를 받아 전시 점령지에 대한 금괴와 보물 약탈작전인 ‘골든 릴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김수 무라코시’ 라는 별명으로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각국의 현장을 누비고 다녔으며, 특히 종전 직전엔 필리핀 주둔군 사령관인 야마시타 장군의 지원 하에 이 금괴들을 루손섬 산중에 은닉하기 위한 작전의 최고위 책임자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치치부 왕자.

삼아주 영국, 주 소련 대사를 거치며 수까르노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9.30쿠데타가 실패한 직후 체포되어 수하르토 군사정권에 의해 1966년 10월 사형선고를 받고 짜마히(Cimahí), 짜삐낭(Cipinang), 블리따르(Blitar) 교도소를 전전하다 1995년 8월 16일 독립기념일 특사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집권층의 삼엄한 감시를 받아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털어 놓지 못한 채 2004년 90세를 일기로 사망한다.

요즘에도 한국의 구한말 채권, 제2차대전 당시 발행된 일본천황의 채권, 또는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의 인도네시아인 명의로 된 채권의 상속자로 사칭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야마시타 골드’ 유형의 보물이 숨겨진 곳을 안다며 소정의 은행수수료와 착수금만 있으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언론에 가끔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2차대전 전비를 마련하기 위해 전쟁 당사국들이 발행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채권이 지금 세대에 그대로 이관되어 넘어온다면 세계 화폐경제의 질서는 교란되어 큰 혼란이 올 것이라는 예상은 금융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충분히 가늠이 가는 사안이다. 그래서 전후 세계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같은 국제금융기구가 존재하기에 이르렀으며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FRB)이 베일 속에 중차대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리라 짐작하게 된다. 파나마의 노리에가, 필리핀의 마르크스 등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조성된 독재자들의 기하학적인 ‘검은 돈’이 다 이들 기관에 의해 견제되거나 전쟁 이전에 발행된 국채들이 정리되고 있음은 바로 세계경제질서 확립의 일환일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이해하게 된다.

습자의 기억

부연 이선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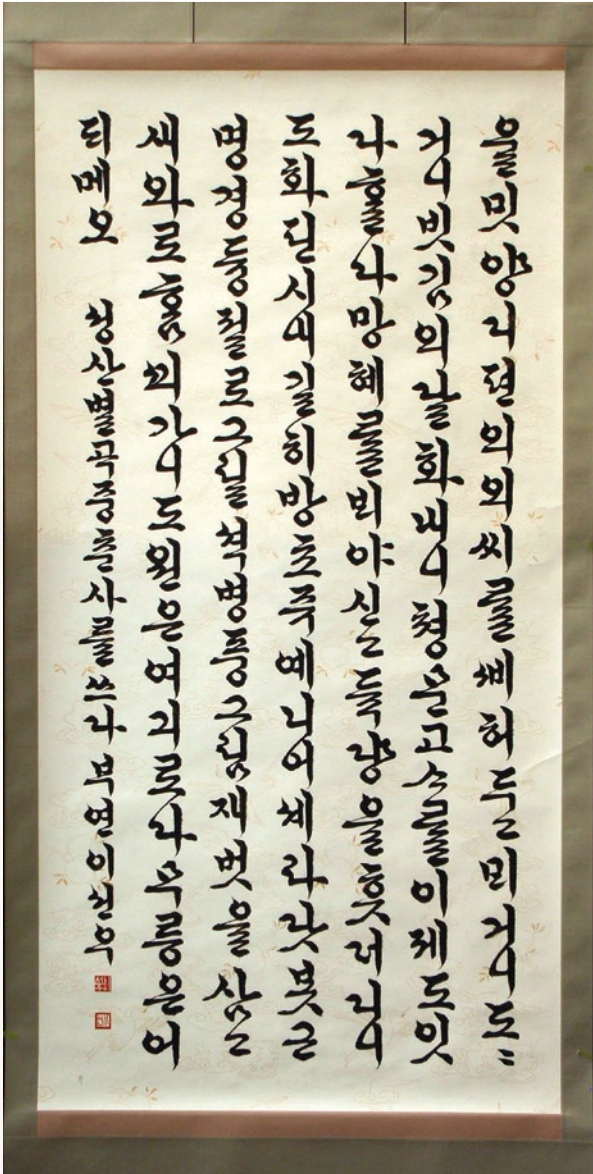
“글씨가 딱 너다, 애!”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 글씨 앞에 섰던 서울의 친구가 뺨은 그 한마디에 난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 전날, 똑같은 말을 엄마에게서도 들었었기에……. 그날 난, 그 글씨를 쓰고 또 써대던 때보다 더 오래 바라보았었다. 무얼까? 무엇으로 하여 딱 나라고 말하는 것일까? 정작 자신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직 채 알아내지 못했는데 저 글씨 하나가 나를 대신하고 있다니……. ‘나’ 라니……. 그들은 나를 다 알고 있는 것일까? 문득, 붓을 잡은 손에 축축한 땀이 느껴진다.

누군가 그랬었다. 40이후의 얼굴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그보다 십년을 더 보낸 지금 얼굴도 아닌 내 글씨, 내 이 서툰 붓자리를 책임져야 한다. 벼루 그득히 갈아놓은 먹물, 누군가는 현묘하다고 표현한 저 검은색의 먹물을 바라보기가 민망해진다. 쪼그리고 앉아 조심스레 다시 펴 보는 구겨진 화선지들 위로 혹은 크거나 작게, 혹은 굵거나 가늘게, 혹은 단정하거나 흐트러지게 보이는 저 많은 모습들. 수없이 많은 내가 화선지 위에서 나를 올려다본다. 그리고는 날 향해 묻는다.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고…….

나는 수시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한복 자락 여미며 난을 치고 싶다는 내 선부른 소망을 떠들어 대곤 한다. 이 얼마나 가벼운 바람인지 나 스스로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한 자락 선을 곧바르게 내려 긋는 날, 나는 그저 조용히 다음 선을 위해 마음으로 붓을 옮겨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그리고 보면 난 참으로 양심도 없는 약탈자인 셈이다. 어느 날 그저 손쉽게 얻어지는 재주를 꿈꾸는…

창밖에 변함없이 내리는 비를 눈 감아 가슴으로 느껴보며 다시 붓 권 손에 마음을 모아본다. 아직은 더 많이 다듬어야 하는 나. 내 글씨……. 매일매일 하얀 화선지위에 하나씩 둘씩 붓자리를 옮겨가며 나를 채워가야 함이다. 어느 날인가, 내려다보고 있어도 그다지 부끄럽지 않을 그날을 위해…….



창밖에 비 내리는데, 그 밖과 마주 앉아 나 이렇게 오래 있었나보다. 눅눅한 화선지위로 생각 없이 들이댄 붓에 그만 스르르 먹이 번져 나간다. 화들짝 놀라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내려다본다. 저리 곧게 떨어지고 있는 빗줄기를 보지도 못했는지, 제멋대로 휘어있는 선, 정신 잃은 간격은 대체 맘 간 그곳을 알 수가 없음이다.

“습자는 단순한 글자 익힘이 아닙니다.”

스승의 목소리, 누군가 옆에 있기라도 했던 양 뒤통수가 뜨끈해 지는 걸 느낀다. 쓰던 화선지를 열린 꾸깃꾸깃 책상 밑으로 던져 버린다. 벌써 몇 장째, 먹빛 글씨들의 꿈틀거림 위로 일그러진 내 모습들…….

틈새를 파고 들어라

재미있는 틈새이야기

글: 하민수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요즘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아주 조그마한 일들이다.

구멍가게를 경영하던 식당을 운영하던 그 속에는 성공할 수 있는 사소한 디테일들이 한없이 많다. 말단 직원에서 우수한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오른 홍콩의 기업가 왕중추의 책에서 발견한 디테일의 힘을 추려내 봄으로써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틈새를 찾는데 도움을 줄까 한다.

원손잡이 전용 업체

와타나베는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후 자기의 가게를 열기로 결심하고 신문을 보다가 미국인의 25%, 일본인의 17%, 영국인의 15%가 원손잡이라는 사실을 알고 테니스 라켓, 골프채, 자동차 핸들 등 원손잡이 전문제품 판매점을 차려서 개업하자마자 원손잡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머지않아 도쿄의 최대의 매출을 자랑하는 상점이 되었다.

오토바이 광고

페인트 점을 운영하는 류선생은 광고에 거액을 쓸 여력이 없어서 웨이난 시에서 택시로 이용하는 삼륜 오토바이를 광고수단으로 활용하기로 하고 오토바이 1대당 10위안을 지불하고 오토바이의 천막에 '페인트를 사러 가실 때에는 무료로 태워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적어 넣었다. 광고업계에서는 이런 방법이 구태의연한 광고수법이라고 무시했지만 얼마 후에 나타난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인테리어업자들 가운데 그의 상점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단추 구멍이 있는 냅킨

고급레스토랑에 가면 좌석마다 냅킨이 놓여 있다. 그런데 냅킨을 목에 두르면 흘러내리고 무릎 위에 올려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바닥으로 떨어지기 일쑤다. 그래서 사람들은 냅킨을 테이블에 올려 놓은 채로 식사를 하거나 엉덩이 밑에 깔고 앉아 식사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칭다오에 있는 등라이순이라는 음식점에서는 냅킨의 한쪽 구석에 단추 구멍을 만들어 놓아서 티셔츠의 단추에 끼우게 하여 냅킨이 흘러 내리지 않게 하였다. 손님들은 음식점의 서비스가 세심하다고 칭찬을 하면서 즐겨 찾는 음식점이 되었다.

바늘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봉제용 바늘을 수입할 때의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바늘 까지도 수입을 해야 하느냐고 비난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제 바늘을 한 번이라도 써 본 사람은 수입해야 하는 이유를 금방 이해 하였다. 중국제 바늘은 귀가 작은 동그란 바늘귀를 만들었지만, 일본제의 바늘은 눈이 침침해서 바늘에 실을 꿴기 힘든 노인들을 위해서 바늘귀가 기다란 타원형이었기 때문이다.

0.9 톤 화물차량

상하이의 내부 순환도로는 1톤 이상의 화물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었다. 그러나 순환도로가 개통된 지 1달이 지나자 한 일본 업체가 0.9톤짜리 화물차를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조명등의 방향

DM은 일상용품과 화장품을 파는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소매점이다. DM의 설립자인 베르너가 매장을 들어서다 바닥을 비추고 있는 조명등을 빗자루 끝으로 방향을 바꾸어 상품 진열대를 비추도록 하였다. 부하 직원들에게 말로 하는 것 보다 강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베르너 회장이 직접 빗자루로 조명등의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고 한다.

깨끗한 우유 배달차

어느 유제품 회사의 마케팅 담당 부사장은 100대의 자사 우유 배달차를 산뜻한 색상으로 통일하여 색칠을 하고 우유 배달이 없더라도 매일 아침 도시 곳곳을 달리도록 하였다. 그 결과 깨끗한 우유라는 인식이 사람들의 머리에 박혀 판매고가 증가하였다.

콜롬비아호의 참사

2003년 2월 1일 미국의 우주 비행선 콜롬비아호가 우주여행에서 귀환하던 도중 갑자기 폭발하여 7명의 비행사가 목숨을 잃었다. 이 사고는 20,000여 개의 단열재 조각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갔고, 26년 간이나 NASA에서 일했던 책임자가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단순한 현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바람에 날개 부위의 과열로 폭발해 버린 것이었다. 드러나지 않는 작은 문제 하나가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준 사고였다.

복어 요리

복어는 육질이 연하고 맛이 있어 좋지만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 잘못하면 중독되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 식당에서는 이 독을 제거하는 30가지의 매뉴얼을 만들어서 실행하므로 복어의 독에 중독되는 경우가 없다. 독을 제거하는 요령을 수치화 하여 과학적으로 관리하는 세심한 관리가 중독을 예방하는 것이다.

맥도널드

맥도널드에서는 햄버거에 들어가는 고기가 구워진 후 20분 내에 판매되어야 하며 판매되지 않은 고기는 폐기처분해 버린다. 따라서 손님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하고, 팔리지 않아서 버리는 고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수요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예측하여 고객 수와 고기 양을 합리적인 비율로 맞출 수 있어야 한다.

한 사람 때문에 무너진 공룡은행 베어링스

1995년 2월 26일 233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베어링스 은행이 너 리슨이라는 한사람의 직원 때문에 1 파운드에 ING그룹에 인수되었다. 싱가포르에 파견된 리슨이 선물 거래를 통하여 1993년 1000만 파운드를 벌었다. 베어링스 은행 총수익의 10%에 해당하는 대단한 금액이었다. 베어링스 은행은 리슨을 자사의 보물로 여겼고 그가 큰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환상에 도취되어 그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리슨이 사고 판 상품은 '니케이 지수 225지수'였다. 리슨은 니케이 지수를 두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지수가 얼마가 될지를 미리 예상하여 그에 따라 매도와 매수를 해나갔다. 지수가 현재보다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하고 오를 것 같으면 매수를 하였다. 선물시장에서는 아주 작은 비율인 6%만 걸어도 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제로 건 밀천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벌거나 잃을 수도 있었다.



1995년 일본 고베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래도 리슨은 시장 추세와는 반대로 돈을 이리저리 굴렸고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났다. 그런데도 본사에서는 리슨이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그가 송금을 요구 할 때마다 송금을 하여서 4주 동안에 본사에서 송금한 돈이 8억 5000만 달러에 달했다. 1995년 2월 23일 하루 동안에 니케이 지수가 350포인트나 빠졌다. 하지만 리슨은 모든 계약을 사들였다. 그러나 시장은 계속 그의 예상과는 어긋났다. 리슨의 손실액은 8억6000만 파운드나 되었다. 베어링스 은행 전체 자본금의 1.2배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2월 26일 베어링스 은행의 파산이 공식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은행은 거래와 결산을 분리하여 각각 다른 직원에게 맡겨 관리를 한

• 독자기고



다. 그러나 베어링스 은행은 거래와 결산을 분리하지 않고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리슨에게 주었다. 따라서 리슨은 자신의 거래 결과를 결산할 수 있으므로 거래의 리스어나 손실을 은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디테일을 무시한 부실한 관리가 재앙을 몰고 온 것이다.

사소한 실수로 좌절된 수출

보통 새우껍질을 벗기는 일은 사람이 직접 하게 되는데 일부 직원들이 손에 습진이 생기자 클로람페니콜이 함유된 습진약을 바르고 일을 하다가 그 성분이 새우에 들어가게 되었다. 유럽 현지의 검역소에서 1000톤의 냉동새우를 검역하다가 총 수출량의 50억 분의 1에 해당하는 클로람페니콜 0.2그램이 발견되고 그 때문에 전체 새우가 폐기처분되고 클레임까지 받았다.

재앙이 된 만찬

동베이 지역의 한국유기업이 미국의 대기업과 합작투자를 원하고 미국측의 방문단을 초청하였다. 초청을 받은 미국대표는 기업의 생산 공장과 기술센터 등을 보고 설비와 기술수준 근로자들의 작업태도 등을 조사한 후 합작투자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국유기업은 미국대표를 만찬에 초대했다. 만찬 장소는 고급호텔이었고 20여명의 간부와 시정 공무원들이 배석을 하였다. 으리으리한 식사와 20여명의 배석자가 참석한 만찬을 보고 미국대표는 경악을 하였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그는 한끼 식사에 막대한 돈을 쓰는 기업과는 합작투자를 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침을 뱉는 공장장

한 제약회사가 독일의 바이엘 제약회사와 제휴를 원하고

독일의 바이엘 제약회사의 대표단을 초청하였다. 그런데 대표단과 함께 공장을 둘러보던 공장장이 무심결에 바닥에 침을 뱉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바이엘 대표단은 바로 견학을 중단하고 제휴계획을 백지화 하였다. 제약회사의 특성상 공장이 철저하게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데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아무 곳이나 침을 뱉는다면 그 공장의 위생상태는 뻔하기 때문이었다.

쌀가게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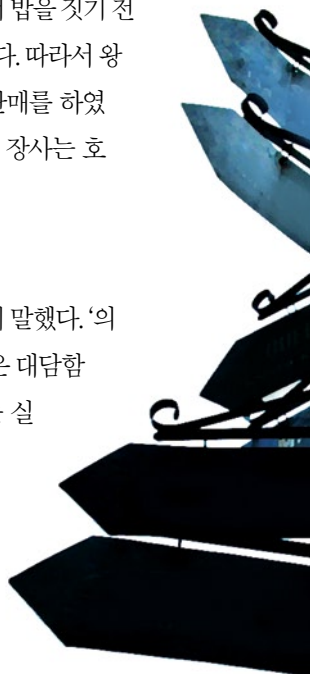
대만 제일의 갑부인 포모사의 왕용칭 회장은 쌀가게를 시작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이다. 왕용칭이 쌀가게를 외진 길 모퉁이에 냈지만 찾는 사람이 없었다. 며칠을 곰곰 생각한 그는 쌀의 품질과 서비스를 높이기로 한다. 그때만해도 쌀에는 잔돌과 모래가 많이 섞일 수밖에 없어서 밥을 짓기 전에 쌀을 일어 돌을 골라 내는 수고를 해야 했다. 따라서 왕용칭은 쌀에서 돌과 모래를 골라 낸 후에 판매를 하였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 자연스럽게 그의 장사는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세심한 관찰력

의과대학 교수가 첫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은 대담함과 세심함이다.’ 간단하게 말을 마친 교수는 실험대위에 놓인, 소변이 가득 담긴 컵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빼서는 자신의 입 속에 넣었다. 그러고는 소변이 든 컵을 학생들에게 건넸다. 그리고 학생들도 자신이 했던 것과 똑같이 하라고 지시했다. 모든 학생들이 손가락을 컵에 깊숙이 넣었다가 입에 넣었다. 모두들 구토를 참느라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런 모습을 본 교수가 웃으며 말했다. “좋아, 모두들 대담해. 다만, 세심함이 부족해. 내가 컵에 넣은 손가락은 둘째 손가락이고, 입속에 넣은 것은 셋째 손가락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걸 보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

우주비행사가 최종 결정되기 1주일 전, 20명의 지원자가 비행선 보스토크 1호에 직접 타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모든 지원자들은 신발을 신은 채로 우주선에 올랐다. 그런데 가가린은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우주선



에 올랐다. 가가린의 이런 행동이 비행선 설계사의 눈에 띄었고, 가가린은 이 행동 하나로 설계사로부터 큰 호감을 얻게 되었다. 설계사는 27세의 이 청년이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우주선을 아끼는 것을 보고 가가린에게 인류 최초로 우주를 비행하는 신성한 사명을 부여했다. 가가린의 작은 행동에서 그가 다른 사람이 애써 만든 성과물을 아끼고 보호할 줄 아는 자질을 지녔다는 것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작은 친절이 가져온 큰 선물

날씨가 잔뜩 흐린 어느 날 오후 소나기가 내리자 길을 걷던 한 노부인이 비를 피해 필라델피아백화점 안으로 들어갔다. 수수한 옷차림에 비에 젖은 노부인을 백화점 직원들은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때 젊은 청년 하나가 다가와 물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괜찮아요, 비가 멈추면 곧 나갈 거라우” 노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노부인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남의 가게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비만 피한다는 것이 염치없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후 그 청년이 다시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다. “불편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문 옆에 의자를 하나 가져다 놓았으니 의자에 편히 앉아 계세요” 두 시간 후 소나기가 그치자, 노부인은 그 청년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명함을 1장 달라고 하였다. 몇 개월 후 필라델피아 백화점 사장 앞으로 한 통의 편지가 왔다. 편지에는 그 직원에게 자기 업체에 물건을 납품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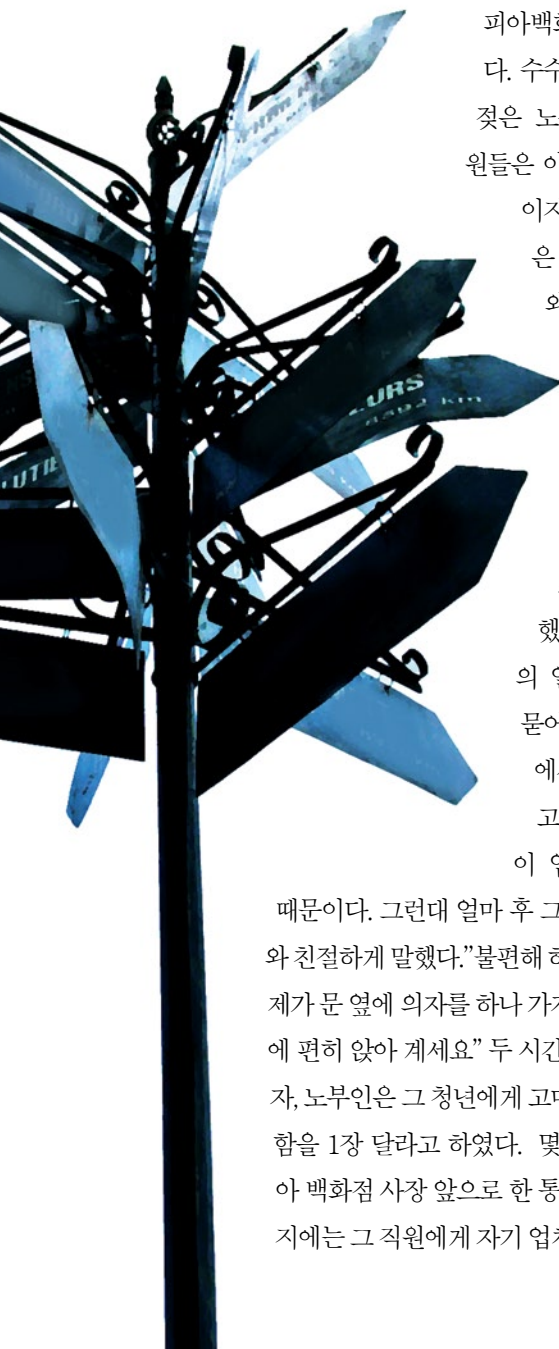
는 일을 일임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 편지는 몇 개월 전 비를 피했던 노부인에게서 온 것이었고, 그 노부인이 철강왕 카네기의 모친이었다. 편지 한 통이 회사에 가져다 준 이익은 회사 전체 총 이익 2년치에 상당하는 것이었다. 후에 이 청년은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카네기의 오른팔이 되었고 사업 역시 크게 번창하여 미국 철강업계에서 카네기 다음으로 중요한 거물급이 되었다.

세심한 배려... 아름다운 후지산

도쿄에 있는 한 무역회사에서 바이어들을 위해 기차표를 구매하는 여직원이 있었다. 독일에서 온 기업의 이사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였다. 항상 그의 좌석은 오사카로 갈 때에는 우측 창가이었고, 도쿄로 올 때는 언제나 좌측 창가 쪽이었다. 궁금해 하던 이사가 그 이유를 묻자 그 여 직원은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오사카로 갈 때는 후지산이 오른쪽에 있고 도쿄로 돌아 올 때에는 왼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갈 때나 돌아 올 때나 아름다운 후지산의 경치를 감상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방향이 다른 좌석을 예매해 드린 것입니다. 세심한 배려에 크게 감동한 이사는 이 회사와의 무역거래를 4만 마르크에서 1200만 마르크로 늘렸다. 직원들이 이렇게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회사라면 완전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위에 열거한 여러 사례의 공통점은 성공의 힘은 바로 디테일과 틈새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웅대한 전략을 수립하는 전략가가 아니라 꼼꼼하게 디테일을 챙기는 꼼꼼한 관리자며 틈새를 찾는 틈새전략가이다. 개구리를 끓는 물에 넣으면 단번에 튀어 나온다. 그러나 그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개구리는 뛰어들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간다. 이와 같이 현재 잘나가는 사업체도 회사가 성공하여 정상궤도에 진입하고 기업의 관리가 안정을 찾아가면 기업 내부에서 생기는 작은 문제점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다. 이러한 디테일 한 문제들을 즉각 해결하지 않고 쌓아두면 언젠가는 그 피해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몰고 온다. 식당을 경영하는 사람이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건 대기업을 운영하는 회장이라도 회사 안의 작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틈새를 찾아 나갈 때에 각 회사의 발전과 성공이 보장된다고 하겠다.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원고 모집 기한 : 12월 15일 까지



인니 교민사회는 어느덧 4만명 규모라는 최대 외국인 교민사회로 성장해 직간접적으로 교민사회내에서 또한 현지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더욱더 밀접해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인니사회에 한국인의 좋지 않은 이미지들이 공공연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한국인이 가담한 소주밀수와 불법유통이 인니 당국에 적발되어 우수 일간지에 일제히 보도되는 등 한인사회를 바라보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글리코리안의 모습은 세계 어느곳이든 존재합니다. 어글리코리안의 내면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꼭 심성이 어글리 해서는 아닌 듯 합니다. 자국문화 우월의식, 타문화 이해 부족이,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 해외 동포사회와 현지국과의 불협화음이 곧 '어글리 코리안'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는 듯 합니다. 이는 교민사회가 성숙해 가는 과정에서 짝더라도 꼭 지나가는 여정이며 그래서 꼭 넘어서야 될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에 한인뉴스는 교민들과 함께 <어글리를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라는 주제로 해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교민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기다립니다.

1. 주제 : 어글리 넘어 자랑스런 코리안으로!
2. 모집기간 : 2009.7.10 ~ 2009.12월 15일까지
3. 대상 : 인도네시아 거주 교민
4. 원고분량 : A4 용지 4매 내외
5. 형식 : 자유
6. 발표 : 한인뉴스 지면
7. 시상일자 : 2009. 12월 중

8. 시상내역 : 대상 1인, 우수상 3인, 가작 5인, 참가상. (대상,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최신식 디지털 카메라를 상품으로 드리고 한인뉴스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9. 보내실곳 : Haninnews123@gmail.com
10. 문의처 : 한인뉴스(Tel : 521-2515)
11. 담당자 : 김영민 편집위원 (HP :0818-916-566)



반등에서 겪은 하루

글/사진 김성월
hansol0508@hanmail.net

“이부 김 어서 와요.”

“네, 반가워요. 어머, 또 아기를 가졌군요. 지난번에는 아들이었나요 딸이었나요?”

“그 아기가 이 아기잖아요. 아직 출산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농담도 잘한다며 툭, 치고 싶었지만 꼭 참고 아주머니를 물끄러미 쳐다봤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렇게 말한 뒤 만삭인 자신의 배를 만졌습니다. 나는 이때가 싫어서 ‘정말’ 하면서 아주머니의 배를 쓰다듬듯 만져 보았습니다. 태동은 안 느껴졌는데 배가 부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뱃속의 아기가 지금 몇 개월이나 됐어요?”

“응..... 37개월.”

나는 잘못 들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 다시 물어보았더니 대답은 똑 같았습니다. 순간 내가 인도네시아 말을 이렇게 못하는 건가 아니면..... 어리둥절해졌지만 나는 다시 또박 또박 물어 보았습니다.



“아니 그때 그 아기 아직까지 출산하지 않고 있던 말이에요?”

보고 믿는 믿음은 의심이 많은 ‘도마의 믿음’이지만 이런 걸 보고서 믿으려면 나도 못 믿지 아니 안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37개월이나 되어도 출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산모도 저렇게 잘 움직일 수가 있는지, 왜 병원에 가서 초음파는 해보

지 않는지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동네 사람들에게 물어 보고 싶었습니다.

”
임신 37개월
아이는 초능력 키우는 중
”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펴보니 그곳 기자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기자들과 함께 빙빙 돌아가는 풀레세르 취재하러 올라갔습니다.

풀레세르는 해마다 추수할 무렵 수머당에 있는 순다족들의 전통문화행사로 풍차콘테스트를 말합니다. 풍차를 순다어로 풀레세르(koleser)라고 합니다. 이 행사에는 그곳 사람들 모두가 참가하였고 손자들은 막대기와 나르는 심부름을 하였고 아버지들은 이리저리 묶고 세우고 할아버지들은 뒷집진채 참가하며 조연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풀레세르의 높이가 3m부터 7m까지 전봇대처럼 긴 막대가 세워졌고 헬리콥터의 날개 같은 것이 썩썩하고 돌아갔습니다.

순다 조상들은 풀레세르를 보고 일년 농사와 가정사를 가늠했는데 마치 토정비결과 일기예보 역할인양 말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이 풀레세르는 날개가 바람에 ‘윙~윙’ 강한 소리를 내며 잘 돌아가면 농사가 대풍년이고 그 집안의 일 또한 만사형통한다고 믿고 해마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풍차와는 모양이 다르고 머리카락 같은 것으로 엮은 꼬리가 있어 특이한 모습입니다. 꼬리가 달린 이유는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기 위해 균형 잡는 역할을 합니다. 바람개비가 잘 돌아가려면 바람이 불어야 하기에 바람 부르는 의식을 하는데 부녀자들이 나와서 영덩이를

마구 돌리면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걸 세상이 둥글둥글한 세상에 바람개비가 둥글둥글 잘 돌아가 주길 기원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열심히 만들었고 무거운 걸 여럿이 걸머지고 산꼭대기로 잘도 올라갔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그곳 기자들에게 아주머니에 대하여 물어봤더니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산 중턱에 있는 행사장으로 와서 아주머니와



동화 같은 이야기를 더 나눌 생각이었는데 뽀뽀후씨가 풀레세르 참가자들의 심사를 마쳤다고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뽀뽀후씨는 수머당(SUMEDANG)의 전통문화행사 책임자이며 아주머니의 남편입니다. 그들 부부와 나는 2년 전에 취재일로 만났고 날이 너무

어두워 그 집에 하룻밤 신세를 졌고 이번에 만나니 더욱 친근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인사를 하고 왜 아기가 출산하지 않고 뱃속에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남편은 이번 달 지나고 라마단 금식이 끝나면 그 다음 달에는 출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뱃속에 든 아기가 석가모니처럼 도를 닦으며 초능력을 키운다며 그 설명을 나보고 믿으라는 건지 아니면 더 못 믿을 것이 있다는 듯 이웃 마을의 누구는 올해 6년째 아기를 뱃속에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뿌뿌후씨가 어떤 남자 분을 소개시켜 주는데 반등 시장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남방과 바지차림으로 맨발에 발가락 끼는 산달을 신고 있었습니다. 반등시라면 인도네시아에서 다섯 번째 큰 도시인데 설마 비서도 없이 시장님 혼자서 마실 나오듯이 저렇게 행사장에? 이번에는 뿌뿌후씨가 나에게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조금 후 아주머니에게 저 분이 진짜 반등 시장님이

맞는지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반등 시장님과 그들 부부와 나는 돛자리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너무 인간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반등 시장님은 아내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등등. 우리는 함께 일 마치고 들판에서 점심 먹는 그런 편한 분위기였다. 식사가 끝나고 반등 시장(H.U.U.S.RUSLA.SE.MS)님께 인터뷰를 부탁드렸고 그 분이 뉴스를 꼭 시청하고 싶다고 메일을 알려주시면 뉴스 웹사이트를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플레세르에서 순다족은 우승자들에게 트로피와 상품을 주었고 꽃다발 대신에 천을 목에다 걸어줬습니다. 그건 라마단 금식기간이라서 기도에 더욱 정진하라는 뜻으로 사롱(천)을 목에 걸어 주기도 했습니다.

반등에서의 하루는 나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살면서 내가 자주하는 말입니다. Aneh Tapi Nyata! 참 이상하네 하지만 사실이네.

” 소개받은 산달을 신은 남자 주인공은 반등 시장

”



시상식 후 모습



한국의 다자외교와 국제적 리더십의 기회

- 「UN 총회 · G20 정상회의」 성과와 의의 -

박홍순(선문대 국제학부 교수)

지난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외교행보는 한국의 국제외교에 새로운 지평을 마련할만한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마침 9월 셋째 주는 미국에서 굵직한 국제회의가 연이어 개최된 중요한 주간이었다. 뉴욕 유엔본부에서 「기후변화 정상회의」와 「제64차 유엔총회」, 그리고 피츠버그에서의 제3차 「G20(세계주요20개국) 정상회의」가 개최된 ‘세계정상’들의 모임 기간은 이 대통령에게 다자외교의 본격적인 활동무대가 되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 정상회담을 통해 ‘녹색외교’ 리더십을 발휘하였다. 쏠지구적 현안인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발전 전략을 소개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대상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인 감축의사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회의를 주관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12월 코펜하겐 당사국 총회의 성공을 위한 세계주요국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 결집에 성공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對 ‘유엔외교’ 강화에 기여하였다. 총회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코리아’의 비전과 ‘기여외교’ 표방을 통하여 유엔의 도움을 받은 한국이 이제는 ODA(공적원조) 확대를 통한 개도국 개발 지원과 유엔 PKO(평화유지활동) 참여 강화를 통해 국제평화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공약하였다. 뿐만 아니라 ‘물’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전세계적 거버넌스체제의 구축을 공식 제안하여 향후 물관리 이슈에서의 적극적 역할을 주도하는 기회로 활용하였다.

이 대통령 방미외교 성과의 절정은 ‘G20외교’라고 할 수 있다. 제3차 G20 정상회담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임무수행을 통하여 세계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해법과 국제적 공조방안을 역설하였다. 한국이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는 모범사례국으로서 인정받으면서, 이 대통령은 그가 제시한 지속적인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제안과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체제 형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더구나 가장 괄목한 성과는 한국이 내년 11월 제 5차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G8(서방선진8개국)의 역할의 한계에 직면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신흥 개도국 및 호주 등 중견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G20이라는 새로운 국제금융, 경제협의체에서 향후 한국은 더욱 당당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뉴욕체류기간 중 ‘북핵외교’도 전개하였는 바, 특히 전세계적인 비핵화 원칙에 대한 지지와



‘그랜드 바겐’ (grand bargain)안을 제시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다. 「오바마」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그동안 양자간 혹은 6자회담 등이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현실에서 북한의 핵폐기와 개방 등에 대응하는 일괄타결안을 강조한 것이다.

국제무대에서 한꺼번에 얻어진 이러한 가시적인 외교적 성과에 대하여 ‘단군 이래 가장 중요한 외교사적 발전’ 혹은 ‘올림픽 유치에 버금가는 획기적 사건’이라는 수식어가

결코 과장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러한 성과는 정부의 외교적 쾌거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무엇보다도 경제성장 등 한국의 높아진 국력의 신장과 국가의 저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한국은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산업화, 민주화, 국제화에 성공하여 새롭게 국제사회의 선진 중견국으로서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제적 위상이나 영향력에서 '저평가'돼온 것이 사실이다. 한국은 이제 세계 GDP의 90%, 그리고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G20의 의장국 및 차기회의 주최국일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및 정치문제에서 명실공히 '세계지도국가 그룹'의 일원임을 인정받은 것이다.

둘째, 이번 외교적 성과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위상과 역량을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가령, 한국이 녹색성장 전략이나 경제위기 극복에서 보여준 성공적인 성과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은 국제사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호응을 받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특별한 역사적 경험과 선도적인 정책은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환경속에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 의지를 가진 국가로서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이번 성과는 한국 다자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이 그동안 주로 한반도 안보문제에 매몰되어 주로 양자외교에 치중하거나 글로벌 이슈에서 주변적 역할을 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이번에는 국제경제, 금융, 환경, 지역분쟁, 개도국개발, 물 관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다자외교에서 새로운 자신감을 갖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무대에서의 이와 같은 활발한 정상외교는 국제공조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한국이 북핵문제 해결 노력 등에서도 보다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결국 한반도 평화 구축에 기여하는 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대통령의 방미외교 성과는 한국이 전세계 국가를 리드하는 엄연한 선진국으로서 위상과 역량에 걸맞은 본격적인 역할을 하는 새로운 시발과 가능성을 함께 보여준 획기적이고도 역사적인 '사건'이며 전환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인뉴스 정기구독자를 모집합니다.



한인뉴스는 보다 많은 교민들에게 정기적으로 한인사회의 소식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정기구독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정기구독 신청 방법

하기 한인뉴스 계좌번호에 정기구독료를 납부하시고

1. 성명(한글 / 영문)
2. 주소
3. 연락처(회사나 자택 / 핸드폰 번호)
4. 구독료 납부 영수증

팩스: 021-526-8444 나 이메일: haninnews@naver.com
로 보내주시면 정기구독 신청확인서와 함께 1년간 한인뉴스를 발송해 드립니다.

● 정기 구독료 (1부/1년)

- JABOTABEK : 30만 루피아/년
- 기타 지방 : 40만 루피아/년

● 계좌번호

- A/C No : Bank Woori Indonesia
DDA-913-014112 (Rp 계좌)
- Name : HANINEWS Fax : (021) 526-8444

바하사



글 : 허영순 번역 작가 (KBS WORLD INDONESIA/OKTN)
자료 제공 : KORINDO/KBS WORLD INDONESIA



사랑... Cinta, Sayang, Kasih...???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무엇일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무엇 일까요?

인도네시아에 있다 보니...

10월 9일이 지나고 나서야 ‘아 한글날을 잊고 있었구나’ 했습니다. 2009년 10월 9일은 563돌 한글날 이라고 합니다. 한글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 고아부가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한국인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사랑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행복, 아름다운...가족 등을 꼽았습니다.

사랑이란 단어 하나이면 모든 대상에 대한 마음을 표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인도네시아어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대상(목적)에 따라 몇 종류의 단어로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1. Cinta
2. Asmara
3. Sayang
4. Kasih

Cinta/ Asmara/ Sayang/ Kasih 모두 이성에게 느끼는 좋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뜻 합니다.



사랑이란 단어가 어색 하게 느껴지는 분은 오늘부터라도 가족에게 또는 연인에게 사랑한다고 말해 보세요.

사랑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 보았습니다. 이성이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 / 부모나 스승 또는 신(God)이나 윗 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등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 /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 열렬히 좋아하는 이성의 상대에게 하는 말로 정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에 따라 한국어의 사랑과 다르게 연인간의 사랑, 신의 사랑, 윗 사람이 아래 사람을 아끼는 마음 등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예)

Cinta의 사전적 의미는

- 1) suka sekali (매우 좋아하다)
- 2) Rindu sekali/Ingin sekali와 같이 어떠한 것을 간절히 그리워 하거나 원할 때 씁니다.

1) 성이 다른 대상 끼리의 사랑 / Cinta antara dua orang yang berbeda jenis kelamin

Aku mencintai pacarku sekarang,
나는 지금 애인을 사랑한다.

Sebenarnya dia **cinta** kepada wanita itu dari dulu tetapi tidak berani mengakuinya.

사실 그는 오래 전부터 그녀를 좋아해 왔지만 용기가 없어 고백 하지 못했다.

2)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 Ingin sekali

Makin ditindas, makin terasa betapa **cintanya** kita akan kemerdekaan.

억압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간절히 독립을 원한다.

3) 아끼고 그리워 하는/ Sayang sekali

Aku **cinta** tanah airku.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한다.(아끼고 그리워 한다)

(*Tanah air는 Tanah (토지)와 air(물)이 합성되 조국이란 숙어입니다.)

Asmara 은

연인, 남녀 간의 사랑일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Hubungan **asmara** Eka dan Andar berlanjut ke pernikahan.

एका와 안드리의 사랑은 결혼까지 골인 했다.

Sayang 은

연인이나 기혼 부부들이 '자기야' 또는 부모가 아직 어린 아이를 호칭 할 때 사용 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또는 상사가 부하 직원을 아낄 때 또는 유감일 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1) 유감스러울 때

Sayang sekali dia tak bisa ikut pergi ke Puncak.

그가 뽀짝에 같이 갈 수 없어 유감이야.

2) 신의 인간에 대한 사랑

Tuhan menyayangi hamba-Nya.

신은 신자들을 사랑한다.

(*Nya는 신을 나타내는 대명사로 사용되어 N을 대문자로 표기 하였습니다)

3) 부하 직원이나 가족간의 사랑, 아끼는 마음을 표현 할 때

Bapak Muhammad menyayangi pegawainya yang rajin dan jujur.

무하마드 씨는 근면하고 정직한 직원을 아낀다.

Pada umumnya orangtua menyayangi anaknya.

일반적으로 부모는 그 아이를 사랑한다.(아끼고 귀히 여기다)

Kasih 는

일차적으로 연민을 나타냅니다. 신이 인간을 향한 사랑도 표현 하지만 Sayang 과는 다르게 연민에서 비롯되어 무언가를 부어주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 외 Memberi 와 같이 ~을 주다 라는 뜻도 갖습니다.

1) 연민을 나타낼 때 (Belas kasihan)

Kasih an anak itu, dia ditinggalkan orang tuanya saat masih bayi.

어릴적 부모를 잃은 불쌍한 아이이다.

2) 사랑(나누어 주는 사랑)

(Saling berbagi kebaikan)

Sesama manusia harus saling mengasihi.

모든 인간은 서로 사랑 해야 한다.

3) 신이 인간에게 느끼는 연민.

Tuhan mengirim Anak-Nya karena mengasihi manusia.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신)은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

Tuhan, kasihanilah kami.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 읍소서.

(Tolong: 본 문장에선 명령어의 -lah 가 아니라 요청의 의미입니다)

Tip:

Pilih kasih 란 단어는 '편애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긍정적이고 기분 좋은 말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해줍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나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혹시 지금 몸과 마음이 힘들다면 또는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름다운 말들을 소리 내어 읽어 보면 어떨까요? 감정을 표출 한다는 것 어렵지만 꼭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기쁨의 눈물은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 한다고 하네요. 증명된 바는 없지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 몸에 쌓인 독소를 눈물을 통해 배출 한다고 합니다. 들어도 또 들어도 여러분에게 미소를 주고 아름다움을 주는 마음이 환해지는 말들...

사람들이 이 말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담긴 뜻이 아름답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꽃에게 또는 기르고 계시는 동·식물에게 아름다운 말을 전해 보세요.



Mari Berjoged.

결혼 전부터 문제가 많았던 커플 '진경'과 '한', 결혼에 골인하여 신혼 여행을 떠났습니다.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칠부지 처럼 자란 '진경'. 겁 없이 30만원 짜리 와인을 시켜 '한'과 다닙니다.

잘못 했다, 미안 하다는 소리를 잘 안 하는 진경은 본인이 잘못 했지만 ... 안아 무인으로 화를 냅니다.

Aku tahu kau bukan anak dari keluarga kaya, tapi aku tak suka dengan orang kikir.



Kikir/Pelit

(Terlampau hemat menggunakan harta bendanya) 두 단어 모두 너무 절약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Pelit은 구두쇠를 뜻을 갖으며 주로 구어체로 사용되

며 Kikir 보다 유한 표현으로 농담으로 주로 받을 수 있는 표현이며 Kikir는 구두쇠이면서 계산적인 사람을 표현 합니다.

예)

Jangan pelit menyisihkan sebagian uangmu untuk orang miskin.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기를 인색히 하지 말라.

Dia memang kikir dalam segala hal.

그는 모든 면에서 계산적이다.

안아무인인 진경의 성격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진경과 신혼 여행 떠난 한이 걱정되는데...



진경이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남편이 불쌍해요.

Jin kyeong punya **perangai(watak/sifat)buruk.**

Aku **kasihan** pada suaminya.

Artis terkenal itu **berperangai buruk**

그 유명한 연예인은 성질이 더럽다.

Perangai는 keperibadian, watak, sifat, karakter 와 같이 어떠한 사람의 성격을 나타냅니다.

Perangai 는 buruk과 함께 사용되어 좋지 않은/ 나쁜 성격을 의미 할 때만 사용되며 **perangai buruk**은 함께 숙어 처럼 사용 하시면 됩니다.

(* Perangai baik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문장에 나온 **Kasih**은 상기 3가지 의미 중 연민을 나타내는 kasih 로 사용 되었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여러분도 마약사범이 될 수 있습니다.

김모씨 등 3명은 지인이 건네준 신발을 신고 싱가포르 공항에서 출국하다가 그 밑창에서 헤로인 2.1kg이 발견되어 체포되었습니다

해외교포인 박모씨는 큰 돈을 주겠다는 아르헨티나 마약 조직에 속아 비닐로 포장한 코카인 1kg을 삼킨 채 운반하다가 독일 공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연기자 지망생 이모씨는 일본에 관광을 갔다가 클럽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복용하고 그 일부를 몸 안에 숨겨 들어오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오늘도 낮은 타지에서 외롭게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범죄조직원이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 마약범죄 조직원들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눈 한번 딱 감으면 큰 돈 벌 수 있어요**” 거액의 사례금 또는 무료 해외여행을 시켜주겠다고 유혹하면서 마약 운반을 부탁합니다. 특히 운반 대상을 섬유원단이나 광물 샘플이라고 둘러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각별한 조심성이 필요합니다.

“**남들도 다 하는거예요.**” 유흥주점에서 피로회복제라는 명목으로 마약을 술에 타서 권하거나 흡연하도록 하여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기방 좀 들어주실래요?**” 항공기를 놓쳤거나 휴대품이 너무 많아 혼자 들 수 없다면서 마약이 숨겨져 있는 가방을 대신 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 마약의 유혹, 단호하게 뿌리치세요!

마약은 무엇보다 현장에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으로 인생이 통째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주요 남용 마약의 종류 및 특성



필로폰 중국에서는 병두, 필리핀에서는 샤부라 불리며, 유흥업소에서 술에 타서 마시게 하거나 연기로 흡연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중독성이 매우 강해 한번 접하면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이 특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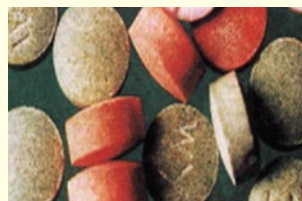
엑스터시 알약 또는 캡슐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일본이나 태국 등지의 클럽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강한 환각 작용을 유발하며, 최근에는 뇌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케타민 ‘스페셜 K’라고도 불리며 엑스터시의 대체물 또는 엑스터시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보조물로 사용됩니다. 코로 흡입 또는 연기로

태우거나 술에 타서 마십니다. 기억손상, 운동기능 장애,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합니다.



아바 원산지는 미얀마이며 태국 등 동남아 등지의 유흥업소에서 유통됩니다. 알약 형태이며 필로폰과 같은 성분에 카페인·코데인 등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대마초 대마초는 대마의 잎과 꽃 부분을 건조하여 담배형태로 태울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THC라는 환각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대마초는 기존 대마초를 개량하여 환각효과를 높이므로 부작용 또한 더 큽니다.

인도네시아어에 관한 2009년 법률 제24호가 상업계약에 미치는 영향

Bahasa Indonesia

변호사.변리사 이승민 (YSM & PARTNERS)
yisngmin@centrin.net.id

인도네시아어에 관한 2009년 법률 제24호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부분적으로 개정이 불가피한 법률로 생각이 되나 중단기적으로는 비즈니스 세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지 계약법에 비추어 상기 법률이 비즈니스 계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검토해 본다.

1. 계약의 적법 조건

계약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적법한 것은 아니며 계약이 적법하려면 법에 규정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의 적법 조건은 민법 제 132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320조에 규정된 계약의 적법 조건은 i). 계약 당사자 간에 상호 합의가 있어야 한다. ii).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iii).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목적물이 있어야 한다. iv). 계약의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및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는 네 가지 조건이다.

그러면 적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서는 무효인가? 하는 의문에 떠오른다. 적법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일단 당사자 간에 구두 혹은 서면으로 합의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계약이 당사자 간에 합의 혹은 법원의 판결로 실효하기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1.1.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조건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방법은 구두 합의이거나 서면 합의이거나 모두 합의에 해당된다. 합의 표시 방법은 i). 완전한 말을 사용한 서면 합의, ii). 완전한 말을 사용한 구두 합의, iii). 불완전한 말을 사용했으나 상대 당사자가 이해하고 합의, iv). 말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몸짓으로 합의, v). 묵언 혹은 침묵이나 상대가 이해하고 합의를 표시한 방법이 있다.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강제에 의한 합의, 사기에 의한 합의 혹은 착오에 의한 합의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민법 제1321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대 당사자가 해약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만 해약이 가능하다.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해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계속 유효하며 법원의 판결로 취소가 가능하다.

1.2. 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 법적 자격 조건

누구나 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아무런 제한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는 법률행위 권리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고 있다. 민법상의 법률행위를 제한받는 자는 미성년자와 금치산자이다. 미성년자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권리는 친권자인 부모에게 있으며, 법원의 판결문으로 파산이 선고된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법원에서 임명한 관재인에게 있으며, 주식회사의 직원은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가 없으며 주식회사를 대표하는 법률행위 권리는 이사회에 있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를 하는 자는 반드시 법률행위 권리가 있는 자, 즉, 법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의 자격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계약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는 계속 유효하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아들이 컴퓨터 가게에 가서 컴퓨터를 산 경우에 아들의 부모가 컴퓨터를 판 가게에게 매매 계약 해지를 요구한 경우에 컴퓨터 가게 주인이 이에 불응하면 컴퓨터 매매계약 무효소송을 청구해서 법원의 판결로 컴퓨터 매입이 법적효력을 상실하기까지는 계속 유효하다.

1.3. 계약 목적이 있어야 하는 조건

계약 목적이란 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도네시아어로는 Objek Prestasi라고 하며 Prestasi는 i). 어떠한 것을 넘겨 줘야하거나, ii). 어떠한 행위를 해야 하거나, iii).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를 계약하는 경우에 Prestasi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넘겨 주는 것과 부동산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계약 목적이 있어야 하는 조건을 위반한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원인무효란 법리상으로는 해당 계약이 애시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 한 당사자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상대 당사자는 유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이 불가피하다. 법원의 판결에 계약 내용 중에 계약 목적이 없으므로 원인무효라고 판결이 나온다고 이해하는 것이 현실적인 이해이다.

1.4.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

계약의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면 법규상으로 금하는 마약매매 계약, 도박계약, 장물 매매계약, 외국인에게 보유를 불허하는 부동산 차명 보유 계약, 부도덕한 계약결혼 계약,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법테모 계약 등은 계약 내용

이 적법하지 않다. 계약의 내용이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는 계약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법리상으로는 역시 해당 계약이 애시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 현실적으로는 계약 당사자간에 계약에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법적인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

2. 하자 계약에 대한 법적인 이해

상기 1.1.항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 조건 과 1.2.항의 계약 당사자의 계약체결 법적 자격 조건은 주관적 조건이라고 하며 계약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해약을 하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약 시까지는 계속 법적인 효력을 유지한다. 상술한 미성년자인 아들이 컴퓨터 가게에 가서 컴퓨터를 산 경우에 부모가 해약을 요구하고 컴퓨터 가게 주인이 이에 응하면 해약이 이루어지나 부모가 해약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컴퓨터 매매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 상기 1.3.항의 계약 목적이 있어야 하는 조건과 1.4.항의 법규, 도덕, 윤리 혹은 공익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는 조건은 객관적 조건이라고 하며 개관적 조건이 결합된 계약은 법에서는 원인무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3. 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지 않거나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내용, 이행, 조건, 계약의 형태(구두 혹은 서면) 등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권리가 계약 당사자에게 있으며 자유 의지로 자유롭게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민법 제1338조에 적법하게 체결한 계약은 당사자 간에 법이다 라는 규정이 계약 자유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민법이 보장하는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인도네시아어로 계약을 하던 영어로 계약을 하던 당사자들의 자유이나 민법보다 상위법인 인도네시아어 사용 의무법에 인도네시아인 혹은 인도네시아 단체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이 하위법에 우선한다는 법의 원칙에 따라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지만 계약의 적법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계약은 법적으로는 하자 계약이므로 계약 자유의 원칙은

현실적으로는 제한적으로만 보호를 받고 있다.

4. 성실의 원칙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계약내용과 계약 이해에 성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한측 계약 당사자의 불성실로 인하여 상대측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손해를 당한 측이 손해를 끼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5. 인도네시아어로 작성되지 않은 계약서의 법적 효력

인도네시아어 사용에 관한 법률 2009년 제24호 제31조 1항은 “국가의 기관, 정부의 기관, 인도네시아의 민간단체 혹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관련된 모든 양해 각서 혹은 계약서는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해야 하며 해당 외국인의 국어 혹은 영어로 병기할 수 있다”로 인도네시아어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가의 기관, 정부의 기관, 인도네시아의 민간단체 혹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관련된” 이라는 뜻은 계약 당사자이거나 계약 목적물이라는 광범위한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가 된다. 인도네시아 회사 혹은 인도네시아 사람과 계약을 인도네시아어로 하지 않으면 민법 제1320조에서 규정한 계약의 적법 조건 제4조건, 즉, 실정법에 위배되는 하자 계약으로 원인무효에 해당된다. 은행이 인도네시아 회사 혹은 한국계 외자투자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Loan Agreement을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하지 않고 영어로만 체결했다가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는 제도가 발효됐다. 돈을 빌린 회사가 상환이 어려워지면 영어로만 체결된 Loan Agreement이 인도네시아어에 관한 법률 2009년 제24호 제31조 1항 위반이니 원인 무효에 해당된다고 Loan Agreement 무효 소송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원인무효에 해당되면 Loan Agreement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안한것으로 간주되므로 은행은 영구히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건설 계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결과가 우려된다. 건설업체가 시공을 하고 시공비 지불을 요구하는데 자금 사정이 어려워진 발주업체가 계약서가 인도네시아어로 되어 있지 않고 영어로만 되어 있으니

2009년 법률 제31조 1항 위반이니 원인무효라고 계약서 무효 소송을 청구하면 시공업체가 꼼짝없이 당할 가능성이 많다. 잘못 된 법이라도 법은 강제성이 있으므로 준수를 요구하며 위반 시에는 그에 따른 불이익이 따른다. 인도네시아 국가의 기관, 정부의 기관, 인도네시아의 민간단체 혹은 인도네시아 국민이 관련된 모든 양해 각서 혹은 계약서는 불문곡직 반드시 인도네시아어로 체결하고 영어 혹은 한글로 병기해야 방법이 불이익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6. 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

6.1. 인도네시아어에 관한 법률 2009년 제24호 입법에 직접 참여한 국회 제 10 분과위원회 소속 2004-2009 국회의원 Lukman Hakiem씨

민족정신과 국어 발전을 위하여 상기 법률을 제정했으나 2009년 총선 및 대선의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한 게 사실이며 2009년 법률 제24호 제31조를 어기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다. 국회에서는 국민들이 국어를 사랑하고 보급하라는 취지로 상기 법률을 제정했다. 불성실한 사람들이 외국어로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의무사항을 피해보려고 외국어 계약서 원인무효 소송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되나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전국 법원에 하달하기를 바란다.

6.2. 인도네시아 대학교 법과대학 Hikmahanto Juwana 교수

정부의 개방 정책으로 많은 분야에서 외국과 관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묵과하고 국제 흐름에 역행하는 법률로 생각한다. 국제 거래에서 인도네시아 측이 결정권을 쥔 계약에는 인도네시아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의없이 따라오겠지만 그 반대인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법률 시행령에서 보완이 필요하며 불이익을 예방하는 확실한 방법은 인도네시아어와 외국어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Korean Section

Indonesian Heritage Society / Korean Section

(스나얀 소고 옆 Sentral Senayan 1 건물 17층), Tel: 021-572- 5870

웹사이트 : www.heritagejkt.org

Open Lecture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도서관에서 개최되는 ‘열린 강좌’가 11월 21일(토) 10시에 헤리티지 도서관에서 열립니다. 강사는 자립스님이며 제목은 ‘보로부드르와 불교’이며 매우 깊이 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앞으로 이 행사의 담당자는 안미경씨입니다.

Museum Tour

정기적인 국립 박물관 한국어 안내가 매월 첫째 셋째 화요일 9시 30분에 국립박물관 현관 로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6일(화) 자카르타 한국 학교 4학년 학생 90여 명이 국립 박물관에 견학을 왔습니다. 일정이 다소 급하게 생겼으나, 다섯 명의 자원 봉사자, 김현숙, 김효숙, 안미경, 이성래, 이수진 등이 참석하여 행사를 잘 진행해주었고, 학생들은 아주 열심히 경청하는 자세로 투어에 임했습니다.

박물관 안내 봉사자들의 스타디 모임이 11월 12일 10시에 도서관에서 개최됩니다. 지난 10월에 이어서 “인도네시아의 역사와 박물관 유물”에 관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School Program

학교 프로그램은 10월 23일 고등학교 사회문화 시간에 학생 70명을 대상으로 Tropical Fruits of Indonesia 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진행했습니다. 강사는 영국인 Michael Nicholson 이었으며, 자원 봉사 강의를 맡아 해주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이정희, 김종심, 김영덕, 이수진, 기경화, 이미자씨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Photo Club

사진반은 새로운 과정을 시작하고자 이은희, 이종숙님을 비롯하여 대략 0명의 인원을 새롭게 모집하고자 합니다. 매월 첫째 주에 출사를 나갈 예정입니다. 사진반에 새롭게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은 공동 회장에게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공동 회장 이수진 0816 1300 210

이종숙 0812 838 1294



Bint[★]ng은 당신 가슴에

빈땅. 빈땅이 별이었다. 종종 마시는 빈땅이 별을 의미하는 걸 9개월 만에 사진을 찾아보고서야 알았다.

빈땅을 냉동실에 넣었다가 살짝 열기 직전에 유리잔에 따르면 무수한 별들이 잔 위로 떠오르는 이유도 알았다. 황금빛 기포가 별을 닮아서 빈땅이라고 했나보다. 하여튼 맥주이름 치고는 너무 낭만적인 이름이다. 마치 혀끝에 별이 대롱대롱 매달리는 것 같은 어감이다.

그런데 빈땅이, 아니 맥주잔에는 무수히 떠오르는 별이 자카르타 하늘엔 별로 없는 것 같다. 새는 많이 날아다니는데, 밤하늘에 별이 종종이라는 말이 이곳에선 객적은 말이 될 정도로 별이 없다. 왜까? 아무리 생각해도 새들은 많으나 별은 정작 별로 없는 곳이 자카르타인 것 같다.

얼마 전엔 빈땅에 다녀왔다. 가는 길은 교통체증으로 힘이 들었지만, 조금 인내하니 그 피곤함과 힘든 걸 한 번에 상쇄시킬 만큼 거대한 차밭이 나타났다. 그런 광경은 세상에 태어나 처음이었다.

보성의 녹차 밭은 그저 안마당의 그것처럼 느껴질 만큼 산 전체가 차밭이라 그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말 그대로 달려가 초록에 안기고 싶다, 혹은 번지점프를 하고 싶다고 느낄 정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이 탄성을 지르게 만든다. 초록이 주는 청량함과 편안함 거기에 더해져 그것을 만든 인간의 위대함까지 느낄 수 있던 여정이었다.

산위로 올라갈수록 절경이라 그 모습이 지금도 눈을 감으면 떠오른다. 차밭 사이로 난 오솔길과 초록에 포인트를 더해주는 포인세치아 나무는 화룡점정이라고 할만하다.

가는 길에 멜립바가든에서 꽃구경을 하고, 느긋한 점심을 먹었다. 삶이 완행으로 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만 맞볼 수 있는 달콤한 휴식이 충만한 오후였다. 한나절의 휴식지곤

낭만적이고 호사스러워서 아이들도 좋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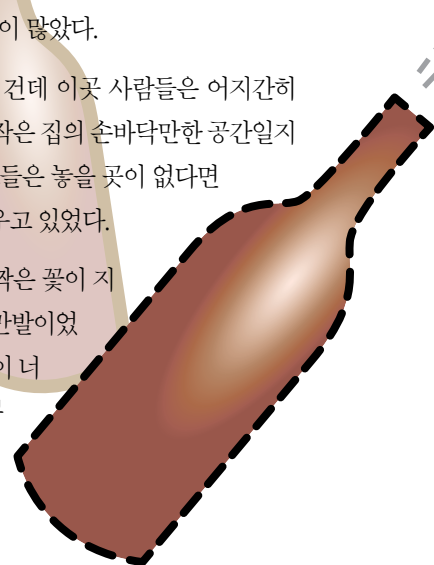
예정했던 대로 가족이 빈땅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다. 하루 밤을 지내는 동안 내가 발견한 것은 빈땅은 인도네시아의 한 곳이 아니라 한국의 대관령처럼 느껴진다는 사실이었다. 단지 눈이 없을 뿐이었다. 팔을 스치는 서늘한 바람은 가벼운 스웨터를 생각나게 하는 한국의 시월 어느 날의 가을 날씨를 떠올리게 했다.

빈땅에서 모처럼만에 산책을 하고, 책을 읽고, 하늘을 보며 천천히 걷는 시간을 즐겼다. 사람은 걸으면서 생각을 하고, 좀 더 발전을 하면 자신을 돌아보며 주변의 모든 것을 사유하게 된다. 그러니 걷지 않고 차만 타고 돌아다니던 지난 9개월이 얼마나 사유라는 단어와 거리가 멀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는데 검은 밤하늘엔 몇 개의 별뿐이었다. ‘쏟아질 듯한 별’이란 표현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빈땅의 하늘에서는 ‘별이 종종’이란 의미는 떠올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역시나 이었다. 그저 밤하늘이 있고, 몇 개의 별이 빈땅이 스티커처럼 하늘에 달려 있을 뿐이다. 대신 빈땅은 꽃이 많았다.

인도네시아에 와서 느낀 건데 이곳 사람들은 어지간히 꽃을 좋아하나보다. 아무리 작은 집의 손바닥만한 공간일지라도 꽃을 키우고 있었다. 그들은 농을 곳이 없다면 벽에라도 걸어놓고 꽃을 키우고 있었다.

자카르타도 그러한데 빈땅은 꽃이 지천이라고 할 만큼 꽃들이 만발이었다. 자카르타의 꽃들은 환경이 너무 좋아서 제 아름다움을 뽐내기보다는 그저 하릴없이





유춘강
소설가, 카피라이터

피고진다고 생각했었다. 아자수가 있고, 꽃이 일년내내 피고 지는 상하의 나란 이미지가 시들해질 즈음에 만난 뽕짝은 자카르타와는 달랐다.

자카르타의 꽃들이 시도 때도 없이 지천으로 널려서 피어 있는 반면에, 한국의 꽃들은 절기의 제한성이 있어서 서로 경쟁하듯 다투어 피어 제 아름다움을 최대한 돋보이려고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뽕짝을 만난 후론 생각이 달라졌다. 그곳의 꽃들이야말로 경쟁하듯, 저를 보라는 듯이 백화만발이었다.

그야말로 뽕짝은 꽃들이 시절을 노래하듯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꽃의 도시였다. 꽃을 노래한 이탈리아의 칸초네가 절로 흥얼거려졌다.

예전에 보고르도 가봤지만 나는 보고르보다는 뽕짝이 더 좋다. 그곳은 탄산수를 마실 때 느껴지는 짜함과 청량감이 있는 도시이다. 그래서 나는 더욱 뽕짝이 좋다.

뽕짝은 꽃이 다투어 피기도 하지만, 나름 강약이 있는 도시다. 강약이 있다는 건 리듬이 느껴진다는 이야기인데 나는 그곳에서 자연의 리듬을 느낄 수 있었다. 꽃들이 맥없이 피는 것이 아니라 생기발랄이란 말을 떠올릴 수 있어서 나는 다시 오리라 마음먹었다.

뽕짝의 절경도 절경이지만 아마도 내가 뽕짝에 푹 빠진 이유는 그리움 때문일 게다. 종종 나는 알 수 없는 그리움에

뒷쪽지를 잡힐 때가 있다. 그건 나의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막내는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만 봐도 '저거 타면 한국 갈수 있겠지? 가고 싶다.' 하며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든다.

혹은 한국에서 먹었던 음식들은 크레파스로 그리며 입맛을 다신다. 막내가 그러놓은 음식들은 막내를 늘 이빠해 주시던 <훤미리 분식> 아주머니가 만들어 주던 떡볶이, 만두, 순대, 열무비빔국수, 잔치국수 등등이다.

시절이 그래서인가. 요즘 아이들도 나도 음식에 대한 향수병에 살짝 걸린 것 같다. 사람의 미각이라는 것이 묘해서 꼭 그 때, 그 장소에서 먹었던 그맛에 집착을 한다. 우리 가족 역시 예외는 아니다. 물론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신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자카르타 거주 초보들에겐 그러하다.

서울은 지금 코스모스가 한창일 게다. 올림픽공원의 억새밭도 여전히 바람에 춤을 추고, 셋노란 은행잎은 말 그대로 가는 가을을 아쉬워하며 푹푹 떨어진다. 단풍은 또 어떤가. 오후의 햇살아래서 붉은 단풍은 흥등처럼 하늘거린단다.

너무나 자세히 한국의 소식을 시시각각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환하다. 늘 지나다니던 길옆의 화단에 핀 붉은 사루비아는 아마 11월까지는 든든히 버티며 제 붉음을 자랑할 것이 분명하다. 사루비아는 서리가 내리고 다른 꽃들이 백기를 드는 절기에도 붉게 제 마음을 보여준다.

아무래도 뽕짝에 한번 더 다녀와야 이 그리움이 조금이나마 지워질 것 같다. 아이들의 시험이 끝나고 말이다.

뽕짝의 멜립바 가든과, 거대한 식물원을 돌아보며 그리움은 삭히고 에너지는 충전해서 돌아와야겠다. 혹시 뽕짝에 가보시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곳에 가보시길 권한다.

뽕짝은 라임을 뿌린 것처럼 당신의 일상을 한동안 향기롭게 할 것이며 돌아올 땐 '한 순간'에 감사하게 될 것이다. 물론 가슴에 별 하나를 달고 돌아올지도 모른다. 빈땅을 말이다. 감사하고 겸허하고, 내 집안 창문을 통해서만 바라본 세상이 전부가 아니란 걸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행은 필요하다. 여행은 때론 인간에 대한 겸허한 예의를 가르치기도 하고 쓸데없이 마음에서 키워낸 오만과 교만을 삭제시켜주기도 한다.

KOWIN, 제4기 출범

- 배정옥씨 회장으로 선출

KOWIN(Korean Women's International Network)은 대한민국 여성부 산하의 단체로서 여성부와 정보교류 및 연계 활동을 하며, 전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지도자들을 연계하고 소외된 여성을 끌어내어 함께 힘을 모아 여성의 긍지를 높여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1년에 여성부에 의해 출범하여 미국 동 서부, 캐나다, 필리핀 등 14개국에 설립된 15개의 지회를 통해 세계 한민족 여성과 교류하며, 매년 KOWIN대회를 개최하여 여성의 공동체의식, 글로벌 리더십, 여성안보 및 인권개선, 경제 활동을 위한 경쟁력 향상을 독려하며 지금까지 약 9년간 활동해 왔다.

인도네시아 지회는 2004년에 발족, 제 1기(2004~05, 회장 이래은) 제 2-3기(2005~09.7, 회장 안영란)를 지나왔다. 주인도네시아대한민국 대사 부인 주영수님이 고문으로 있다. 인도네시아 지회는 각 기관의 전문직 여성들 60여 명의 활발한 참여로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 2009년 8월에 새로 선임된 배정옥 회장 및 회장단을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였다.

남녀의 고정된 기존의 규범, 고정관념을 떠나 여성들 안에 있는 모성의 거대한 힘으로 양성 평등의 사회를 꿈꾸고 있다.

10월 정기 총회 성황리에 개최

지난 10월 20일 5시, 회원 29명이 모인 가운데 정기 총회를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2009년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KOWIN 대회 보고와 2010년도 사업 계획안이 발표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KOWIN 제 4기 배정옥 회장

서 개최된 KOWIN 대회 보고와 2010년도 사업 계획안이 발표되어 많은 호응을 얻었다.

배정옥 회장 취임식 및 정기 총회 개최

2009년 11월 9일 오후 6시 리츠 칼튼 호텔에서 자카르타의 각계 인사, 인도네시아 여성 권익부 임원, 김호영 대사님 내외분 등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배정옥 회장이 취임했다. 삼익 약기에서 이 행사를 후원하며 피아노를 기증했다.

국제 부인회 바자회 KOWIN 참여

(10월 28-9일 자카르타컨벤션센터 Food Court)

국제부인회 바자회가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 스나안 골프 연습장 뒤편에 위치함)에서 10월 28일~29일 양일간 수십 개 국가의 활발한 참여 가운데 개최, KOWIN은 Food Court에서 한국의 맛과 멋을 대표하는 불고기 덮밥, 잡채밥, 비빔밥, 김밥 등을 선보였다.

한국 음식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세계 각지에서 온 관람객들에게 한국음식을 널리 알리며 인도네시아에서 불고 있는 한류 열풍에 한 몫을 하게 된 것이다. KOWIN 회원 모두는 자원봉사로 일하며, 이번 바자회 행사에서도 회원들이 모두 음식을 기부하고 자원봉사를 하는 등 열심히 도와가며 애를 쓰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여주었다. 수익금은 모두 밀알한글학교 운영을 위해 쓰여지게 된다.



바자회에 참여한 KOWIN 회원들

노인 복지 사업- 솔한의원 특별 할인

KOWIN의 노인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솔한의원에서 65세 이상의 노인들분들에게 건강 상담, 골다골 증 측정, 침시술 등의 진료시 특별 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KOWIN인도네시아 지회 홈페이지를 다음카페에 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카페 주소 :

<http://cafe.daum.net/kowinjakarta>

밀알한글학교 안내

자카르타 밀알 한글학교에서는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치부와 초등부를 대상으로 한글학교를 열고 있다. 땅그랑 밀알한글학교에서는 오후 2시-3시는 초등부 대상, 3시부터 5시까지는 인도네시아인을 대상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있다. 찌까랑 밀알한글학교는 금요일 3시에서 5시 까지 한글 수업을 한다.

문의: 0813 1810 7383

대한항공 채용정보

대한항공에서 다음과 같이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1. 원서접수 : 2009. 9. 14 ~ 종료시까지
2. 모집분야
 - 여객운송
 - 화물영업
3. 자격
 - 인도네시아 거주자

- 2년제 대졸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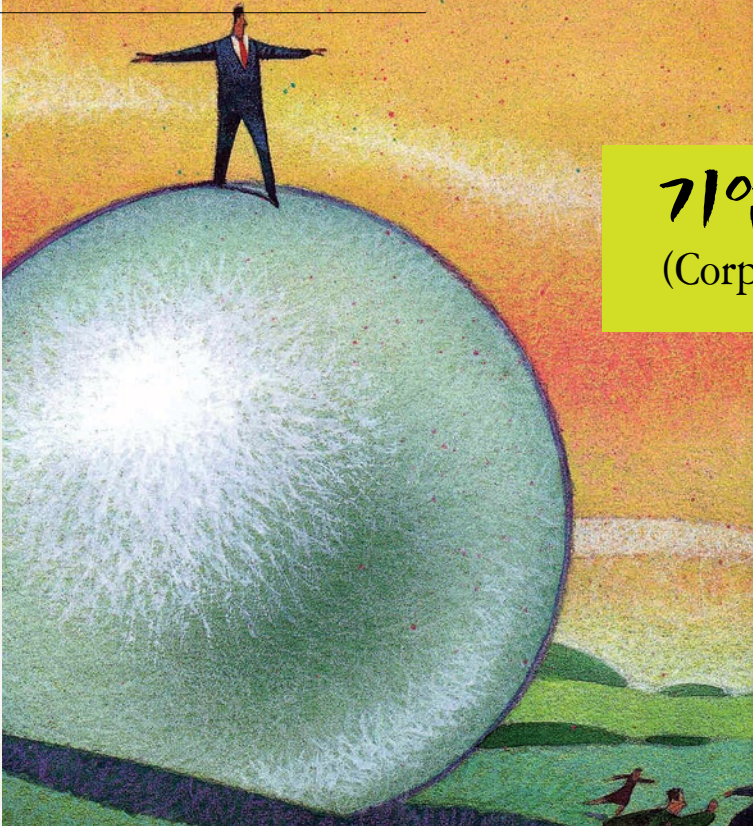
*여객운송 분야는 한국어 가능자

4. 접수방법 : jobstreet.com 을 통해 개별 지원 (<http://id.jobstreet.com/>에 접속, Job Search 에서 Korean Air 입력)

5. 채용일정 : 개별통보

6. 기타문의: 021-521-2177 (Ms. SARI WINIAWATI) 또는 021-521-2173 (부장 양재필)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위상”을 생각할 때 과연 “보다 존경 받는 기업,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 좀더 오래 살아 남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잠시나마 고민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2005년 12월 수마트라 아찌에서 발생한 쓰나미, 2007월 5월 족자 지진을 비롯 최근 수마트라 빠당 지진사태 등 일련의 자연재해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보며 한편 매우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다른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한다.

대기업들의 경우 직접 피해 현장 방문 또는 재해 복구활동에 직간접 적으로 참여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우는 언론매체에 재해성금을 기부하거나 피해사원을 파악하여 일정액의 금일봉을 지원하기도 하며 어떤 기업의 경우는 성금 모금 활동을 통해 지원을 하는 등 그 형태와 규모를 떠나 어떤 식으로든 지역사회에 기여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필자가 최근 졸업한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as Indonesia) 회계사 과정(Profesi Akuntan) 교과 과목중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기업이 경제적 이익창출만으로는 더 이상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없음을 전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환경 보전활동, 합리적 수익 추구 활동을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한 경영활동을 한다”는 내용으로 지속가능 경영(Sustainability Management)으로 확대 발전되고 있다. 필자의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점점 커져가는 인도네시아에서의 한국 기업의 규모 및

1.기업의사회적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란?

기업이 투자자와 주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나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폭넓은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기업의 경영 방침이 윤리적인지, 제품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파괴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는지, 지역사회와 국가에 얼마만큼 공헌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포괄한다.

2. CSR 목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추구하는 목표는 기업 운영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통해 비즈니스의 성공을 달성하면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인데 진보적인 사고를 가진 기업은 자사의 비즈니스에 영향을 받는 더 넓은 그룹의 관심사를 해결하는 일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갖는지를 이해하고 이런 이해 당사자(직원, 파트너, 비영리 단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지역의 커뮤니티 등)들에 대한 책임을 다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Sustainability)을 추구하는 것이다.



방치영

방치영씨는 인니국립이슬람대학교 국립 UGM대학원에서 법학과 경영학을 전공하고 96년 LG전자 인사팀에 입사 후,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s Indonesia와 LG.Philips Displays Indonesia에서 인사/노무/연수 총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인도네시아 新노동법(발행 '04년 8월)

- '03년 노동법 13호 및 시행령

- '04년 산업분쟁 조정법

- 기타 주요 노동법

전화 : +62-21-898-9696 핸드폰 : +62-815-1902-4000

이메일 : agung@lpdisplays.com

1) 경제적 책임과 리더십

- 합리적 수익창출
- 국가경제기여

2) 환경적 책임과 리더십

- 환경경영체제 구축 및 규제대응
- 제품 및 서비스 환경성 제고
- 환경활동 및 환경성과 보고
- 기후변화 대응

3) 사회적 책임과 리더십

- 기업지배구조 개선
- 전략적 사회공헌
- 선도적 윤리경영
- 협력적 노사문화 형성
- 직원 복지 및 안전
- 협력사와의 상생추구

4. CSR 활동사례 및 문제점:

“돈은 많이 쓰는데 효과는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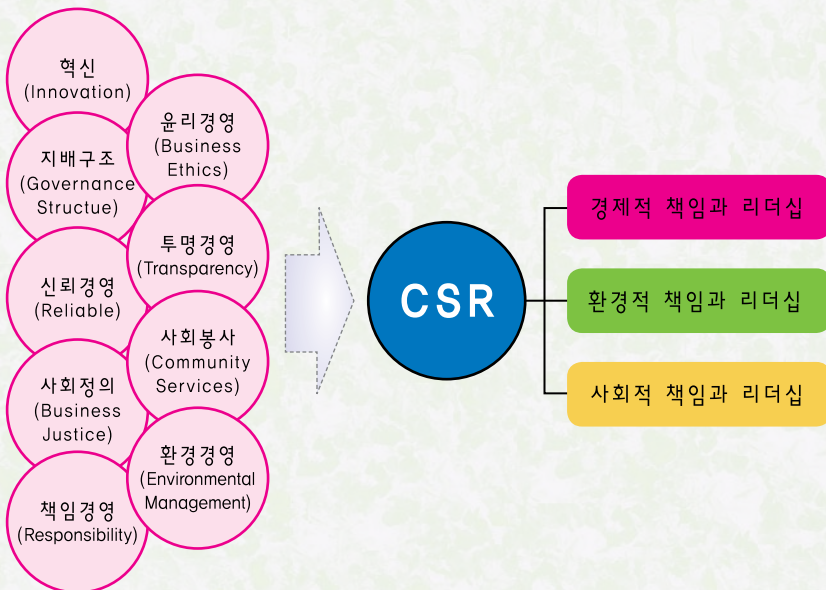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많은 국내 기업들이 CSR을 기부나 자선 활동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이 발간한 <사회공헌활동 백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지출한 CSR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 예산 대비 비율로 볼 때 미국이나 일본 기업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비효율 적이라는 것이다. 많은 돈을 쓰기는 하지만 기업 이미지를 높이지 못하고 있다는 뜻

인데 이는 지속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 기업호감지수 (CFI : Corporate Favorite Index)를 통해 증명된다.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분야에 골고루 예산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CSR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통계를 보면 기업 CSR 지출액의 50% 이상이 기부금이며 지출 분야도 학술, 문화예술, 체육, 사회복지 등에 편중돼 있다고 한다. 착한 일을 했다는 점은 칭찬할 만하지만 문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 CSR 기본 개념:

경제/환경/사회의 균형(CSR-Triple Bottom Line)이라고도 하는 아래의 체계도와 같이 기업의 모든 활동은 CSR로 통합되며 이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말한다.



5. CSR 모범 사례:

“기업 이미지에 맞는 CSR 활동을 찾자!”

위의 한국 기업 사례와는 대조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의 이미지에 걸맞은 한두 가지 CSR 활동에 예산을 집중한다. 미래의 잠재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CSR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1) 화이자(Pfizer):

1998년부터 에드나 메코넬 클라크 재단(Edna McConnel Clark Foundation)과 함께 저개발 국가 트라코마(과립성 결막염)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제약회사의 이미지에 맞는 CSR 프로그램을 구축해야만 소비자들에게 보다 강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잠재 고객을 확보한다는 전략도 숨어 있다.

2) 코카콜라:

주력 제품의 이미지에 맞는 ‘물 사용’ 및 ‘하천 보호’와 관련된 CSR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마존 등 세계 4대 하천의 오염을 줄이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 삼성전자: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 7개 국에 IT센터를 운영하며 정보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에게 IT와 관련된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4) 바이엘:

잠재 소비자인 관절염 환자들을 CSR 타깃으로 삼았다. 이 회사는 우선 관절염재단과 손을 잡고 ‘관절염환자 견기대회’ 등을 후원했다. 자사의 TV 광고에는 ‘관절염환자 견기대회’ 홍보 문안도 삽입했다. 제품 포장지에 붙어 있는 상표를 떼어 우편으로 우송하면 관절염재단이 발간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 주는 이벤트도 벌였다. 업계에서는 바이엘사가 독특한 CSR 활동으로 7,000만 명 이상의 관절염 환자들을 고객으로 끌어들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5)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자유의 여신상 복구운동”

카드 사용금액 중 일정액을 손상된 자유의 여신상을 복구하는 데 사용하였는데 이 캠페인으로 아멕스카드 사용률은 27% 증가했고 신규 카드 발행률도 10%나 상승되었다고 한다.

“CSR 모범 기업에서 ‘사랑받는 기업’으로”

‘사랑받는 기업’은 라젠드라 시소디어 미국 벤처리대학 교수가 만든 용어다. 사랑받는 기업들은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 고객과 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등 기업을 둘러싼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고루 이익을 얻는데 역점을 둔다. CSR의 개념을 협력업체, 투자자, 고객, 종업원 등으로 확장한 것이다.

이 같은 경영 방식은 기업에 손해를 끼칠 것 같지만 결과는 정 반대다. 시소디어 교수는 구글, BMW, 사우스웨스트항공, 아마존, 이베이, 코스트코, 할리데이비슨, 홀푸드 등 28개사를 ‘사랑받는 기업’으로 분류했다. 이들 기업의 최근 10년간 수익률은 평균 1,100%.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S&P500 지수를 산정하기 위해 정한 미국 500대 우량

기업의 평균보다 8배나 높다.

소비자들은 물건을 고를 때 어떤 기업이 후손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를 숙고한 다음 물건을 고른다는 것이 시소디어 교수의 해석이다.

‘사랑받는 기업’으로 꼽힌 코스트코나 홀푸드는 직원과 고객을 겨냥한 넓은 의미의 CSR 활동을 벌이고 있다. 코스트코는 의약품 마진율을 40%까지 높인 다른 할인점들과 달리 마진율 상한선을 20%로 유지해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을 확보했다.

홀푸드는 스톡옵션의 95%를 경영자나 고위 임원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이직률을 낮췄다.

6. 시사점:

기업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2009년 현재 최고의 자산가치를 자랑하는 기업도 10년 뒤에는 시장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은 '한국 기업 쇠퇴의 원인'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보유한 약 28만개 기업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2006년 5월말 기준 국내 기업의 평균 수명이 10.4세로 6년 새 2.3세 단축됐다고 밝히고 있다.(미국과 일본 기업의 평균 수명은 각 13년 및 30년 이다.)

1965년 매출액 순위 100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가운데 80%가 1975년에 순위권 내에서 사라졌으며 그 중에서 지금까지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은 10%뿐이다. 글로벌 경영컨설팅기업 맥킨지의 최고경영자(CEO)였던 포스터는 "2020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대 기업 리스트의 4분의 3 이상이 지금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기업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한 기업이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주목 받으며 살아남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단명의 주요원인으로는 고객과 시장 트렌드 무시, 리더십의 적절한 승계 부족, 리스크 관리 실패, 윤리경영의 부재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위대한 기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객과 긴밀하게 접촉하고 미래 환경변화와 고객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혈연을 초월한 후계자 선정, 기업이윤의 사회적 환원 등의 마음을 비우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하고 있다.

필자가 다소 생뚱맞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주제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게 된 건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약 20년 남짓한 그리 길지 않은 한국 기업의 인니 진출 역사를 뒤로하고 앞으로 인도네시아를 터전으로 한국기업이 더 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는 현실 때문이며 또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모든 한국 기업이 기업 본연의 책임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지역 사회로부터 존경 받는 기업 또한 보다 오래오래 영속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기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물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겠지만 다수의 한국 기업이 인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역할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가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보다 효율적인 투자, 보다 기업의 미래와 연관된 투자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Plan을 가지고 “CSR”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에너지 충전!

기분 좋아지는 과학적 방법 10가지

1. 걷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정기적인 운동은 에너지 축적을 도와준다. 일주일에 세 번, 30분 하는 운동만으로도 생활의 활력을 찾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심리학 교수 로버트 E. 사이어는 연구를 통해 많이 걸을수록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운동과 여행이 그래서 좋다는 거군.

2. 다크 초콜릿을 먹어봐

다크 초콜릿은 기분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배가되어 에너지를 증가시킨다. 도서관에서 고군분투 중인 취업 준비생들에게 추천. 보통 초콜릿은 비만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듯.

3. 신나는 음악을 들어봐

즐거운 사람들, 리듬감 있는 음악, 재미있는 영화 등은 에너지를 한층 높여준다. 기분을 좋게 해주는 모든 것이 엔도르핀 생성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특히 음악을 듣는 것은 신체를 고무시켜 두뇌의 여러 부분을 동시에 자극하고 심장으로부터 산소 이동을 자극해 신체를 생기 있게 만든다. 일구야, 클럽 가자.

4. 사람을 가려 만나라!

짱짱거리는 사람, 부정론자, 걱정으로 푹푹 뭉친 사람 등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게 만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자제하도록 한다. 절망하기 쉬운 백수들이 귀 기울여야 할 대목. 이심전심도 좋지만 같이 한탄만 하는 백수 친구 말고 인생 참 재미나게 사는 친구, 예를 들면 인터넷 만화가 메카쇼킹 같은 친구를 두란 말이지?

5. 물 먹으라고?

세포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몸은 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급격히 피곤해지고 두통이 올 수 있다. 하루 물



섭취량의 정확한 수치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최소 4잔을 마셔야 한다고 말한다.

6. 펜츠아, 잘될 거야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자 카페인도 조금만 섭취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아침에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그 에너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저녁까지 더 많이 섭취하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될 수 있으면 아침 커피 한 잔으

로 양을 줄이되 정 못 견디겠으면 점심 식사 이후 반 잔 정도 마시는 것으로 조절한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커피를 끊음으로써 생기는 초조함을 달랠 수 있는 녹차로 바꾸는 것이 좋다.

7. 명상, 요가, 기도와 같은 심신 운동을 하자



마음을 혹사시키면 몸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몸의 균형이 파괴된다. 또한 체온이 낮아짐으로써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불면증을 야기하기도 한다. 머릿속이 엉켜 있을 땐 이를 풀기 위해서 명상, 요가, 기도와 같은 심신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8.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졌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라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다면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절박한 위험에 처해 있는가?'라고 물어볼 것. 조금은 신파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 질문의 포인트다. 당신이 현재 처한 문제가 결코 위기가 아님을 인식함으로써 다운된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몸 안에서 일어나는 아드레날린 분비 시스템을 조절해 편안한 심신 상태로 이끈다.

9. 야외로 나가라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사무실 밖으로 외출하라. 조사에 의하면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과 혈당을 감소시켜 신체에 활력을 준다고 한다. 태양빛이 기분을 좋게 해주고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활성화시킨다고 타이텔바움이 말했다.

10. 아무 공기나 마시지 마

음이온이 다량 함유된 공기를 섭취하면 신체의 산소 흡입과 세로토닌 함유량이 증가한다고 한다. 음이온은 대기에 공기와 물 분자의 움직임이 많을 때 생성된다. 가장 쉽게 음이온을 생성시키는 방법은 화분.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지내는 사람은 화분을 여러 개 들여놓을 필요가 있다.

문화회관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인사회의 문화활동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개관한 한인회 '문화회관'은 작지만 쾌적한 공간에 교민들께서 보내주신 양서들이 있고, 차 한잔의 여유를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한국과 인도네시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시청각 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우측 도서관 이용안내 참조

[휴게실]

TV시청, 신문, 잡지, 도서 열람 가능

[소규모 모임]

각 문화단체 및 세미나, 동우회 등 소규모 모임 장소대여 가능



한인회 도서관 이용안내

★ 이용 시간

-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 이용 대상

한인회 회원증 소지자

(* 한인회원 가입은 한인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대여 방법

- 가. 회원증 사본 제출
- 나. 보증금 Rp.200.000 (요청 시 환불가능)
- 다. 대여 권수 및 기간
 - 도서 2권 / 기간 7일
- 라. 대여 기간 연장
 -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기가 가능 합니다
 - 전화 및 직접 방문
- 마. 반납 연체 및 분실 시
 - 연체일수 만큼 대출정지 또는 1일 1책당 Rp.1000 부과
 - 분실 시 실비 변상



과주

금지된 마음 그리고 숨겨진 진실. 엇갈린 운명에 흔들리는 남자와 소녀 그들이 펼치는 파란의 러브스토리!

2003년 3월, 그녀가 돌아왔다.

몇 해 동안의 인도 여행을 마치고 고향, 과주로 돌아온 최은모는 언니의 사고사가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언니의 남편인 김중식이 자신 앞으로 보험금을 남겨놓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1996년 봄, 그가 나타났다.

은모의 언니, 최은수가 서울에서 온 대학생 김중식을 좋아하기 시작할 때부터 은모는 중식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결국 언니는 그와 결혼한다.

돈을 벌어오겠다고 은모가 가출한 사이 언니는 사고로 목숨을 잃고 어른인 중식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인 은모는 그와 함께 살아가기로 한다.

2000년 겨울, 그들 헤어지다.

2003년 봄, 그들 다시 만나다. 3년 만에 돌아온 과주에서 그와 그녀, 서로를 사랑해도 될까?



굿모닝 프레지던트

퇴임을 딱 6개월 앞둔 임기 말년의 대통령.

강렬한 카리스마, 그러나 첫사랑 앞에선 한없이 소심한 꽃미남 싱글 대통령 차지욱

대한민국 헌정상 유례 없이 잘생긴 외모, 최연소 야당 총재에 이어 최연소 대통령 당선까지 기록을 달고 다니는 차지욱(장동건)은 다섯 살 난 아들을 데리고 청와대에 입성한 싱글 대통령.

서민남편의 대책 없는 내조로 이혼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최초 여자대통령 한경자

김 정호(이순재) 정권 시절 법무부 장관, 차지욱(장동건) 정권 시절 야당 당대표를 역임한 한경자(고두심)는 건국 이래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완벽한 청와대 라이프를 꿈꾼다. 그러나 갖가지 일정들로 빡빡한 청와대 라이프가 갑갑하기만 한 서민 남편 창면(임하룡)은 청와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경자를 대통령 재임 중 이혼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빠뜨리는데...





ALL THAT UNDERWEAR(올댓언더웨어)

저자 고현정 | 출판사 시공사

이 책은 2~3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얻어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궁금증을 토대로 속옷에 관한 모든 정보를 총망라했다. 내게 맞는 속옷 선택 법과 T.P.O별 속옷 스타일링, 국내외 속옷 브랜드들의 스타일 가이드, 남자들이 좋아하는 속옷 스타일 등 여자라면 알아야 할 속옷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다.

책 속에 가득 실려 있는 예쁘고 다양한 속옷 사진들은 마치 잡지를 보는 듯이 스타일링시키고 꼭 하나쯤은 갖고 싶도록 만든다. 노출 의상을 입을 때 필요한 소품, 란제리 룩 연출법, 체형별 맞는 속옷 선택법, 추천 브랜드와 쇼핑몰 등 관련 정보들도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다. 완성도 높은 스타일을 원하는 여성들이라면 꼭 필요할 스타일 필독서다.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저자 조병국 | 출판사 삼성출판사

홀트아동병원에서 버려진 아이들, 입양아들과 함께한 조병국원장의 50년 의료일기 『할머니 의사 청진기를 놓다』. 지난 50년간 조병국원장이 만난 사람들과의 에피소드들 담고 있는 이 책은 가난하고 슬펐던 시절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아이들과 그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키운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인 조병국원장이 회상하는 22개의 이야기를 통해 가슴 저런 아픔과 희망을 만나보자.

‘영혼’이 담긴 목소리로 세상을 울리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 현군의 이야기. 받은 사랑을 그대로 세상에 돌려준 영수 부부와 수잔, 입양 부모가 보내온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를 보며 뜨거운 눈물을 흘린 사연. 장애아를 입양하고도 행복해하며 하늘이 준 선물로 아이를 생각하며 애지중지 보살피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 등 우리의 아픈 역사 한가운데서 자신의 소명을 다해 살아갔던 한 의사가 바라본 감동적인 실화가 펼쳐진다.



무지개

저자 요시모토 바나나 | 역자 김난주 | 출판사 민음사

요시모토 바나나가 남태평양의 섬 타히티를 여행한 후에 쓴 작품 『무지개』. 라틴 아메리카 여행을 바탕으로 쓴 소설 <불륜과 남미>처럼 요시모토 바나나 문학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연을 닮은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 이야기에 더해, 아름다운 타히티의 모습을 담은 하라 마스미의 일러스트와 야마구치 마사히로의 사진을 책 곳곳에 담았다.

오 해피데이

저자 오쿠다 히데오 | 역자 김난주 | 출판사 재인



오쿠다 히데오가 들려주는 유쾌한 가족 이야기 『오 해피 데이』. 일상으로부터 탈출을 꿈꾸는 여섯 남녀와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따뜻하게 그려낸 소설이다. 유니버셜 형식으로 구성된 여섯 편의 이야기 속에 실제로 있을 법한 생생한 캐릭터들을 등장시켜, 그들이 가족과 별이는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펼쳐놓는다.

회사가 망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된 유스케는 집에서 살림을 맡게 되면서 집안일을 즐기는 자신을 발견한다. 집에서 일러스트를 그리는 일을 하는 하루요는 남편이 직장을 그만둘 때마다 뭔지 모를 영감이 떠올라 일러스트를 잘 그리게 된다. 로하스 열풍에 빠져든 아내와 이웃 부부를 못마땅해 하던 소설가 야스오는 그들의 이야기를 작품으로 옮긴다.

한국 밖으로 뛰어야 산다

저자 조환익 | 출판사 청림출판



세계 경제 위기의 암운이 짙게 드리웠던 지난 2008년 역샌드위치론을 주장하며 우리 경제에 희망의 전도사로 나선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조환익 사장. 이 책은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경제 이론과 실물경제를 조합해 명쾌하게 제시한 책이다. 우리 기업과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 주고, 극복 에너지를 충전시켜주고자 하는 저자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저자는 한국인도 몰랐던 한국 경제의 저력, 현재 세계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 향후 세계 경제를 주도할 지역, 우리 앞에 놓인 새로운 시장에 도전하는 법, 그로벌 강자가 되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각각 갖춰야 할 역량과 전략 등 한국 경제의 강점과 보완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조명한다. 이를 통해 경제 위기 이후 새로운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다.

빌 브라이슨 발칙한 미국 횡단기

저자 빌 브라이슨 | 역자 권상미 | 출판사 21세기북스



날카로운 통찰력과 번득이는 기지로 바라본 유쾌한 미국 소도시 여행기 『빌 브라이슨 발칙한 미국 횡단기』. 가족들과의 극적이고 즐거웠던 유년 시절의 여행을 기억하며 빌 브라이슨은 충동적으로 작지만 ‘미국적인’ 도시들을 찾기 위해 홀로 미국 곳곳을 돌아본다. 일리노이, 미시시피, 앨라배마, 버지니아, 산타페, 그랜드캐니언, 아이다호……. 미국 48개 주 가운데 남부 10개주를 제외하고 모두를 방문하고 2만 2495킬로미터를 달린 빌브라이슨의 생생한 미국여행기를 만나보자.

거침없는 입담으로 이뤄지는 이 여행에서 빌 브라이슨은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다녔던 여행지를 되짚어 간다. 완벽한 고향의 모습은 찾지 못했지만 그는 미국 구석구석을 탐험하며 미국을 만든 문화와 전통 자연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같은 나라지만 각 지역별로 전혀 다른 미국의 특징과 매력을 드러낸다.

자신을 허물고 부활을 꿈꾸는 이에게-

여행은 혁명이다

소장/정연승

tel.021.521.2212
hp.081.888.5353
email.yunisarah@lycos.co.kr

마타하리여행사

www.doowang.net

DOOWANG과 함께 가면
Since 1994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거울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뵙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코리아센터 빌딩 4층(대사관 맞은편)
T 520-7153, 525-4523 F 521-2478 doowang@cbn.net.id

LIVING A&I
ARCHITECTURE & INTERIOR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520	1915
영사관	520	8950
KOTRA 자카르타 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522	777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 **긴급전화**

경찰 (범죄 및 도난신고)	110
구급차	118,119
전기고장 및 문의	123
전화고장 및 문의	147
화재	113
수도고장및문의	5798 6555/577 2010
열차시간 문의	121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국 부인회	526	0878
반동 한인회	022	2041 773
발리 한인회	0361	286 248
보고르 한인회	7782	8886
수라바야 한인회	031	568 8690~1
수까부미 한인회	0266	736 441
스마랑 한인회	0298	522 296
매단 한인회	061	453 8669
족자 한인회	0274	376 741
바딤 한인회	0778	392 014
보고르 한인회	7782	886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 **교민 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버룩시장	8983	1908
한울	452	565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844	4958~61
JIS	750	3640
NJIS	450	7660
BIS	745	1667
간디국제학교	690	9902

● **유치원**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 스쿨(자카르타)	723	0807
(글라빠가딩)	471	8047

● **은행**

수출입 은행	525	7261
외환 은행	574	1030
우리 은행	515	1919

● **종교 단체**

기독교

늘푸른 교회	766	9191
동부 교회	4584	3458
연합 교회	720	5979

소망 교회	739	6487
순복음 교회	739	2373
안디옥 교회	765	3077
열린 교회	844	5537
위자야 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 사랑의 교회	420	9134
주님의 교회	831	3843
한마음 교회	720	8014
한인 성요셉 성당	7884	3782
(찌까랑 공소)	8911	7547

불교

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29	0211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종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

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	-----	------

●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 건강원	7028	4262
고려 건강원	8779	8959
한국 건강원	5579	6411
황소 건강원	5576	7628
진영 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 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름 황성주 생식	5296	1522

●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킵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6	142 5099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 꽃집	0816	733 810

●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	-----	------

● **렌트카/기사클럽**

강남 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 렌트카	6870	9335
우리 렌트카	081	119 3069
한성 렌트카	889	0471
짱구 기사 클럽	7279	8233

●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 이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칼렛	723	5638
아마란스 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퀵덤	7279	2067~8

Kris Kim 7279 1555
Hair Perm 7280 1404

●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 사무실 797 6254

●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 밀레니움 7082 0056
리츠 부동산 6896 7249

●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KEMBAR REJEKI 527 2245

●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 병원

길명근 한의원 722 4646
뉴 월드 메디칼 7279 3809
대한 치과 721 1850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 메디칼 클리닉 799 1333
솔 한의원 7278 7410
신농씨 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한국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땅그랑) 546 0055
R.S. Siloam(짜까랑) 8990 1911

● 비디오

비디오 서울 723 2088
한양 비디오 450 4364
K-마트 비디오 688 22040

● 사진관

ELGA 포토스튜디오 521 0862

●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짜까랑) 7075 2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725 2122
위자야마트 726 9049

● 식당

가나 레스토랑 252 0077
가야성 725 7373
가호(세노파티) 5289 7044
가호(골라빠가딩) 2850 7600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경복궁 8990 8822
고려가든 (024)321 992
고목 897 3463
고인돌 452 5597
고주몽 7279 6709
국일관 822 8974
기소야 574 7581
뉴 코리아타워 3193 0311
다리아 분식 722 0276
대감집 726 4356
돌아온 김삿갓 722 2230
동해복집 720 7464
또래오래 치킨(버까시) 8243 4848
레드토마토 EX몰 315 1033
뽕독인다 7592 0654
마포 7279 2479
만나 821 5279
만리장성 552 1210
모나리자 8990 9570
몰레방아 8990 6956
목우촌 450 4155
미르(맨하튼 호텔) 5296 1201
미추홀 6583 1472
버까시 서울 8895 7604
산들 5579 5821
산타코리아 722 9921
상록수 8983 6047
서동(찌부부르) 8459 9858
서라벌 572 3475
서울가든 (0361)768 323
서울 일식 546 0845
서울 팔레스 (024)447 414
소양강 897 2231
송도(리뽀찌까랑) 8990 1474
수라청(세노파티) 527 8721
수라청(골라빠가딩) 4585 1115
스카이 코리아(공항) 550 9158
시티서울 5289 7506
신도시 897 3615
아랑 22 7082 0601
아랑갈비 8983 6047
아랑/스시 코리아 453 1679
아리랑(리뽀찌까랑) 8990 1662
아리아 분식 722 0276
어울림 551 4853
오장동 오스시 739 6229
우리들 552 4047
울엄마 920 7244
원조식당 4585 1156

항공권·호텔·관광·비자

로템과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 RODEM TOUR

T: 4587-6030 F: 4587-8171 H: 0812-967-8131
E: rodem_tours@cbn.net.id
rodem_tour@hanmail.net

佳肴
Gahyo

佳肴는 1958년 부터 시작해온 양·대창
전문점으로 맛좋은 안주라는 뜻입니다.

예약 : (021)5289-7044

Jl. Jend. Sudirman Kav.52-53 Lot.6 Jak-Sel

고객 만족을 위해 언제나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퓨릭 컨실팅 Since 2001
BUSINESS INVESTMENT & MANAGEMENT

- ◆ 회계 자문, 회계 감사, 세무 자문
- ◆ 투자, 창업 지원 서비스
- ◆ 각종 인허가 대행 서비스

Tel. (021) 5596 3213 / 5595 4666

Korean Traditional Grill

고주몽



7279-6709

Jl. Panglima Polim IX No.7-9 Jakarta Selatan

사무실 인테리어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사무실은
로만인테리어가 책임지겠습니다.



OFFICE INTERIOR 전문업체

로만인테리어

HP. 0811-847-699

Tel: (021) 720-4851 Fax: (021) 726-0910

Jl. Laksana II No. 13, Blok S, Kebayoran Baru

아이니 갤러리 INI gallery

Telp. 021-5814590 / 021-98202086
0812 19285578 / 085217731003
email : inepark@indosat.net

가구 furniture

Neo classic Antique, European Life style,
Modern & Minimalist, Italian Black gold & white.

interior 인테리어

Home, Office, Apartment, Commercial, Villa, Remodeling.

2002 레스토랑	5940 4189
장터	4585 4302
종가집	8990 6956
주막레스토랑	8990 0514
카사블랑카	8241 4949
코리안 하우스	844 4786

코리안 하우스(반등)	(022)203 1626
코리안하우스 횃집	844 5877
타임(가라와찌)	5577 6324
태극관	822 7011
토담	521 0230
토박	725 1135
팔레스	5296 2001
천지루	8990 1662
청기와	726 1924
청마루	452 5597
청해수산	739 7032
초가(가라와찌)	552 6043
춘하추동	5940 2846
하나레스토랑	4482 0081
하나마트 식당	8459 0064
하나비(리뽀찌까랑)	8990 6230
하나정	5577 6457
하림각	551 8511
한강(Wolter Monginsidi)	7278 7802
한국관	720 7322
한민족	725 2688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521 2522
한양가든(골라빠가딩)	450 2071
한우리(찌부부르)	8459 2871
할매손칼국수	4585 3398
함지박	739 6958
해물촌	451 3761
해운대	5577 8527
황소가든	8240 9670
황소가든	(0264)313 011
Ah Yat 레스토랑	5705 333
Esse MM2100	8998 1564
Lobster & King Crab	515 5060

신문

동아일보	720 6802
스피드뉴스	725 7447
조선일보	5290 7388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나프레스	450 9107
일요신문	452 5655
타임 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9820 1493
시티안경원	726 5009

여행사

굿데이 투어	4586 0598
그린 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6 6415
마타하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	603 9274 1780
솔로몬 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574 2660
스카이 투어	391 1381
153 TOUR	5720 153
코리아 트래블	230 3116
코인 관광	720 7230
하나 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땀)	0778 462 500

인터넷

Net2Cyber	576 3490
S-Net	7080 7886
넥스텔링크	525 3187

운송 해운 이삿짐

센다이 이주화물	719 0247
아네카 트랜스	520 4181
트랜스 우따마	829 621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A EXPRESS	525 1628
FN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520 4189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6531 1123

인테리어

Living A & I	7278 0704
로만 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 갤러리	581 4690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오토맥스	

증권/보험

동서 KOLIBINDO	526 1326
삼성 화재	520 5511
우리코린도 증권	797 6210
클레몽 종합금융	797 6363
한진코린도 보험	797 5959
E - TRADING	574 1442
LIG 손해보험	391 3101

● **컨설팅**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브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한생컨설팅	5290	0670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 컴퓨터	725	1606
멀티캡 컴퓨터	5579	0305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www.indoweb.org		
Reading Revolution	722	0833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CITRA	781	7771

● **하숙집**

섬터 하숙	726	8775
일박이일 하숙집	424	0953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미니호텔 뽀독인다	0818	760 747

● **학원/교육업**

대교 인도네시아	8370	7245
다니엘 아카데미	722	0686
리 앤 리	725	5008
마인드케어 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 아카데미	0815	1150 6664
박학천 논술	3342	7540
뽀독 인다 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 아트스쿨(리브찌까랑와짜)	546	4531
예 원	720	8783
인재서당	739	7153
종로 학원	7279	1020
토마토 미술	720	5194
피카소 어린이 미술학원	725	5757
하이스트 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 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 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 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몰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 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 플라자	526	8833
술탄	573	8011

● **환전**

그린 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 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 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 신암	797	6105
참피온 머니체인저	4585	4779
환전	712	8556

● **기타**

꽃과 좋은날	0811	941 173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발리 (지역번호 0361) ↓

● **여행사**

PESONA TAMAN KENCANA	744	1525
PD 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288	999
APA TOUR	241	341
TNB	773	5801
KORUS	744	7200
MARIN TOUR	224	010
VIP TOUR	762	090
SUDINA BALI	744	2121
MATAHARI KORIN	757	474
CAKRAWALA TOUR	727	242
B.J.C TOUR	284	365
M TOUR	725	800
SATYA TOUR	283	305
RED CAP	754	4418
스피릿투어	234	825
Varia Tour	860	4977
Korea Travel	756	899
대한항공지점	244	988

● **식당**

A One Seoul Garden	768	323
hanil rest	727	250
Seoul Garden (0362)	292	20
청기와	287	503
꼬끼레스토랑	287	503
Ajengan Korean FOOD	263	793
Grill House Restaurant	752	755
BUGA RESTAURANT	286	909

● **서비스업**

- **마사지**

아이시스마사지	287	503
INKO MASSAGE	789	2000
MASSO MASSAGE	725	475

- **빌라, 호텔**

드림랜드빌라	708	199
라벤더 호텔 앤 스파	752	961

믿을 수 있는,
Dobo & Tahiti 産 VVS G 칼러
최상품 진주
정가제 판매



고객분을 위해
모든 토라자 커플링
준비해 있습니다

Shop Hour : Monday-Friday 8.30-16.30
Jl Tirtayasa IX/6 (Belakang Hotel Ambara)
Kebayoran Baru, Jakarta Selatan
Phone : +62 21 7399923; +62 21 7245469
Handphone : +62 811 922 045

LOVELY PEARLS
COCCC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BEVERLY HILLS	789	2000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Arirang Hotel (0363)	417	95

- **기타 서비스업**

INT	720	999
HAN STAR	729	099
BALI ZIGI.COM	745	4229
시나르무띠아라(진주)	462	061
선주얼리진주가게	761	539
발리데와따	285	501
CLEAN/GREEN	289	070
환타지가라오케	282	828
뜨게아궁	298	643
공항(폴로)	759	368
BALI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익투스	815	310
Bali Cable Com	705	266
B,T,I	284	362
DEDO RAYA UTAMA	720	452
G.B.I 발롱기구	704	333
LAPAMA 레프팅	288	507

11월 공지 사항

U.I 한국문화의 날

지난해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통해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문화를 널리 알렸던 인도네시아 대학(이하 UI) 한국학과가 금년에도 ‘한국문화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교민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행사명 : 2009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의 날
일시 : 2009년 11월 21일 오전 9시부터
장소 : 인도네시아대학 문화학 대학(FIB-UI)
9동 아우디토리움
내용 : 부채춤, 아롬바 공연, 한글 설명회, 한국영화 상영 외
주최 : 인도네시아 대학 한국학과

한인회 무료 법률상담 안내

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4시(1시간)
장소 : 한인문화회관 1층 상담실
Jalan Jenderal Gatot Subroto No. 58, Jakarta Selatan
상담방법 : 대면 및 통화
상담범위 : 기업법무, 투자권설링, M&A, 부동산, 저당권, 자원개발, 채권 회수, 파산관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소송, 중재, 재단법 인, 출입국관리법 등 법률문제 전반
상담자 : 이승민 변호사, 변리사, 파산관재사(한인회 자문번호사)
MP. 0816-1911245 / Tel. 021) 529-60643
yisngmin@centrin.net.id

대사관, 법률자문서비스 실시

1. 대사관은 우리 기업의 인도네시아 투자 진출 및 안정적인 영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자문서비스센터를 설치 하였습니다.

- 자문 내용 :
 - 인도네시아의 투자관련 법령, 제도
 - 인도네시아 상법, 노동법 등 기업 영업 관련 법률 문제
- 2. 상기 센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당관 김호일 조사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 021)520-1915 / 핸드폰 : 0811-183-3164
E-mail : jkt_kimhoil@msn.com

지진 발생시 행동요령

1. 실내에 있을 경우

- 튼튼한 테이블 밑에서 몸을 우선 보호
 - 테이블이 여의치 않을 경우 방석, 가방, 책,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
- 지진 진동이 멈춘후 밖으로 대피
 - 지진 진동중 서둘러서 밖으로 뛰어나갈 경우 낙하물에 의한 부상 위험이 매우 높음
 -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길어야 1-2분
- 작은 규모의 불이 집안에서 발생하였을 경우, 소화기 등으로 진화
 - 진화가 어려울 경우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낮은 자세로 대피
 - ※ 평소 휴대용 소화기를 집안에 비치할 필요
- 지진이나 화재 발생시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을 경우 모든 버튼을 눌러 가까운 층에 내려 대피
 -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경우 인터폰 또는 핸드폰으로 구조 요청

2. 실외에 있을 경우

- 건물 및 담벼락 등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피신(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
 - 건물의 유리창 파편, 간판 등의 낙하 및 담벼락 붕괴에 의한 부상 방지
- 해안에서 지진이 있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안내 방송에 따라 신속히 대피
- 산이나 급한 경사지에 있을 경우 절개지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한 곳으로 대피

3. 자동차 운전중일 경우

- 당황하지 말고 차를 인도쪽 가장자리에 세움
 - 지진 발생시 차가 정상적으로 조작이 되지 않아 연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설부른 판단에 의한 운전은 금지
- 정차 후 대피할 필요가 있을 경우 안전한 곳으로도 도로 신속히 대피

불법 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1.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은 10.27(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취업허가 (IMTA)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으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 사항
 - 사용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허가 취득
 - 취업허가서에 명시된 직무범위내에서 업무 수행
 - 외국인 취업금지 직종(인사,경리등)에 취업여부 확인
 - 단기체류라도 업무수행 필요시 단기 취업비자 취득
3. 참고사항 : 처벌규정 (인니 노동법)
 - 취업허가 없이 취업 : 1~4년 징역형 / 1~4억 루피아 벌금형
 - 직책규정 미준수 : 1~12 개월 징역형 / 1천 ~1억 루피아 벌금형

한인회 특별활동 및 강좌 안내

< 인도네시아어 강좌 >

강의시간 : 매주 화/금요일, 10:00~12:00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안선근 교수
 연락처 : 521-2515 / 0816-1883-224

< 인도네시아 문화탐방 >

자카르타 소재 40여개의 박물관과 30여곳의 유적지, 갤러리, 레스토랑 탐방과 전시회 등을 관람.
 탐방리더 : 사공경, 신유희
 연락처: 사공경 (0816 190 9976),
 신유희 (0818-708-228)

< 월화차회 >

모임 일정 : 매주 화/목요일, 10:00
 강의실 : 한인회 강당 1층
 지도강사 : 김명지 월화차회 회장
 연락처: 720-4211, 0818-491-325

< 한국어 강좌 >

강좌시간 : 매주 토요일, 09:00~13:00
 대상 : 한국인업체 인니종업원 및 인니인
 강의실 : 한인회 2층
 지도강사 : 김성복
 연락처 : 521-2515 / 0815-1177-1899



항상 저희 대한항공을 애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카르타/서울 노선 및 덴파사르(발리)/서울 2009년 동계운항 시간을 안내해 드리니 참조하시어 편안한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항공기 운항 시간표

자카르타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628	매일	09.10.25	10.3.27	772	자카르타	21:55	서울	06:50*1
KE627	매일	09.10.25	10.3.27	772	서울	15:20	자카르타	20:30

덴파사르(발리)

편명	운항일	운항기간		기종	출발		도착	
KE630	일	09.10.25	09.10.25	333P	덴파사르	02:20	서울	10:25
KE630	월,일	09.10.26	09.11.02	333P		02:45		10:40
KE630	월,일	09.11.03	09.03.27	333P		03:35		11:30
KE630	화~토	09.10.27	09.03.27	333P		01:25		09:20
KE629	토,일	09.10.25	09.11.01	333P	서울	19:25	덴파사르	01:35*1
KE629	토,일	09.11.02	10.03.27	333P		20:05		02:15*1
KE629	월~금	09.10.26	10.03.27	333P		17:55		00:05*1

2. 기간 : 2009년 10월 25일 ~

3. 참고사항

전화서비스는 가 언어 서비스를 각 지역 콜센터에서 24시간 제공합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021-521-2180 으로 연결 후 언어별 번호 선택하면 해당 언어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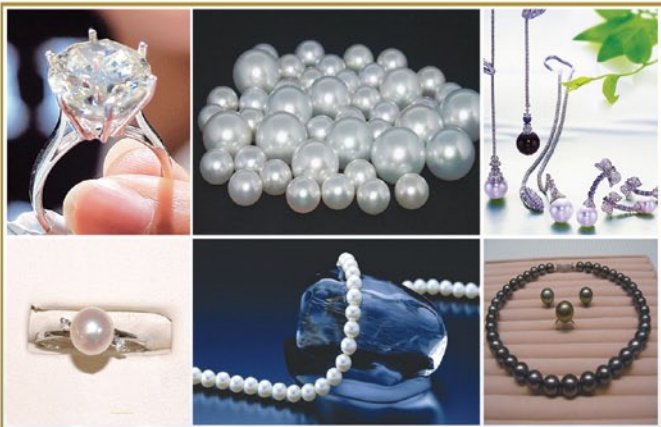
- 1번: 인도네시아어
- 2번: 한국어(24시간 : 한국 콜센터)
- 3번: 영어(24시간 : 미주 콜센터)
- 4번: 중국어
- 5번: 일본어

대한항공은 교민 여러분을 편리한 스케줄과 안전운항으로 매일 고국으로 모십니다.

S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18년간의 신용과 정직을 바탕으로
고객님께 행복을 드리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 ◆ 정품 진주 전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매달가능)
- ◆ 최상품 다이아(GIA) 판매 - 90% 환매 보장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KT-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본점(수출/무역)

Tel. 021-725-8857
HP. 0816-873-176 / 0816-1390-333



알립니다

한인뉴스 이메일

haninnews123@gmail.com

홈페이지

www.innekorean.or.id

한인뉴스 독자 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에서 매월 발행되는 '한인뉴스'는 광고협찬사를 비롯, 한인회 임원사, 운영위원장 등 100여社로 송달되고 한국계 은행과 병원, 교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여행사 및 식당, 슈퍼마켓, 호텔 등에 일정 정도가 배포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뉴질랜드, 중국, 일본, 미국, 스리랑카, 홍콩, 싱가포르, 칠레, 말레이시아 등 해외 지역 한인회와 인도네시아 지방한인회인 동부자바한인회, 반둥한인회, 족자카르타한인회, 스마랑한인회, 메단한인회 등으로도 상당부수의 '한인뉴스'를 우편배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뉴스'에 기고를 원하시는 회사나, 단체, 개인은 언제든지 한인뉴스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뉴스'는 명실공히 한인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매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YUNDAI TRUCK & BUS



KotyBus
KORINDO MOTORS

Berjelajah Seru Bersama Koty !



**HD MIGHTY
TRUCK**

125PS
TURBO - CHARGED INTERCOOLER
EURO II

 **KORINDO MOTORS**

CONTACT : (021) 596-0445



2009 **RAIN**
ASIA TOUR

DECEMBER **03**
2009

LIVE AT **JITEC**
MANGGA DUA SQUARE

FOR INFO, CALL:

W PRODUCTIONS

021-6231-1377

WWW.WPRODUCTIONS.BIZ

OFFICIAL MEDIA PARTNERS:

asianstars

ASIAN PLUS

MyIDOL

oktn
Overseas Korean Television Network